

교회 재활성화 대회 "한 영혼 향한 사랑이 교회를 살렸다"

2026 교회 재활성화 대회에서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저녁집회 메시지를 통해 교회 부흥의 핵심을 “한 영혼을 향한 기도와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아름다운교회에서 열렸으며, 북미선교부(NAMB)와 미주 남침례회 한인교회 총회(CKSBCA)가 공동 주최하고 남가주 지방회가 후원했다. “당신의 교회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Mark Clifton 목사와 Karl Vaters 목사 등 교회 재활성화 사업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전략과 실제 사례를 나눴다.

저녁 부흥회를 인도한 고승희 목사는 ‘큰 비밀’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자신의 목회 초기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다.

고 목사는 “식당에서 밥을 얻어 먹으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상황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그때 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목회하던 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무너지는 한 가정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고 목사는 “누가 잘못했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해 기도해보지 않겠느냐’고 도전하셨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기도의 시작을 ‘기도 온의 300용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구하는 간구로 표현했다. 그는 “성경 사무엘상 22장에 아달람 공동체가 등장하는데, 원통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했다.

또한 “서로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교회 성장 과정도 소개하면서, “성도 9명으로 시작해 3년 동안 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한 영혼을 향한 태도를 하나님이 보셨다”며 “작은 교회는 힘든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곳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성도의 아들이 범죄로 수감된 후 출소한 사례를 말하며,



2026 교회 재활성화 대회가 아름다운교회에서 열렸다. 첫날 집회 후 기념촬영을 했다.

직접 성경과 컴퓨터를 가르치며 양육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청년이 결국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 지금은 애틀랜타에서 사역하고 있다. 한 영혼은 결코 하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역적 영적 환경의 어려움도 전했다. 고 목사는 “교회 주변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모스크 등 다양한 종교가 있어 쉽지 않은 환경이

있다”며 “이러한 영적 결박을 깨는 유일한 길은 중보기도였다. 전도사와 아내와 함께 30년 가까이 기도로 버텼다”고 했다. 특히 라마단 기간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은 기도를 기뻐하시고, 마귀는 기도를 막는다”고 말했다.

또한 선교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면서, “선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모으는 것”이

라며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 단기간에 선교 재정을 모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며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 교회를 살리는 큰 비밀은 결국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기도”라고 말했다. 토마스맹 기자



미셸 박 스틸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됐다.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주한 美대사 지명... ‘지한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70)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

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미국대사 지명을 발표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

미셸 박이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든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후 현재까지 1년 넘게 이어진 주한미국대사 공백 상황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워싱턴D.C와 직접 소통할 주한미국대사 공석 사태가 계속되면서 한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의 우선순위에 뒤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주한미국대사 공백 기간에는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케빈 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대사대리를 맡아 왔다.

그의 정치 여정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분명한 기독교 신앙이다. 스틸 지명자는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신앙인으로, 정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 왔다고 고백해 왔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끄신다”며 정치 현장에서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교육 정책과 공공 영역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반영하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전·현직 지도부도 공화당 내 대표적 ‘지한파’로 꼽히는 박 전 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성 김 전 대사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가 된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녀는 청소년기 일본을 거쳐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는 LA 폭동을 계기로 한국계의 정계 진출 필요성을 절감하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낸 남편 스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에 입문한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의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했다. 김진영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l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가로 인한 스트라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E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ADU 전문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김수리 일체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26년 건축의 달인과의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K-Urban Builders 213-310-1800
 K-Urban Like CSLB # 854389

태양광, 솔라!! *전기세 50~90% 절감*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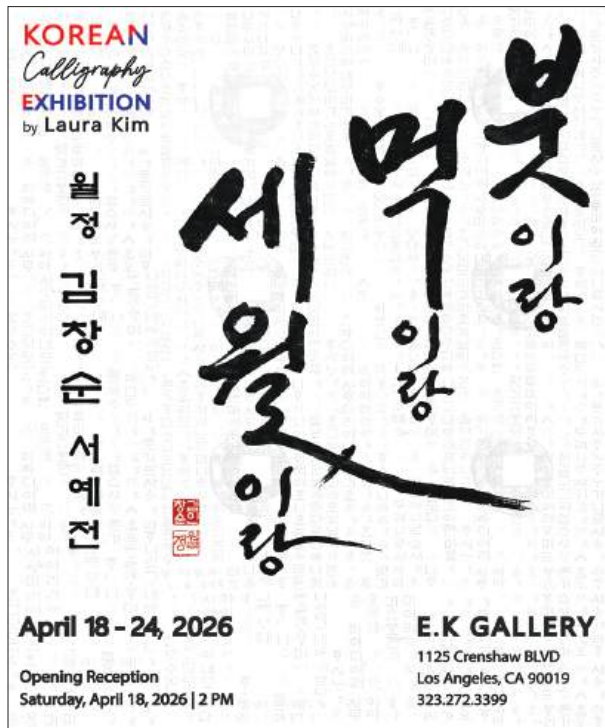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의게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플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70년 붓끝에 담긴 시간... 김창순 서예가, 개인전 개최



‘붓이랑, 먹이랑, 세월이랑’
4월 18-24일 E.K. 갤러리

칠십 년 세월을 붓과 함께 걸어온 서예가 김창순(로라) 작가가 오는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LA 한인타운 인근 E.K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긴 예술 여정을 집약한 자리로, ‘붓이랑, 먹이랑, 세월이랑’이라는 제목 아래 삶과 예술이 교차하는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의 중심에는 길이 70미터에 이르는 대형 작품이 자리한다. 화선지 위에 ‘요한복음’ 전권을 한 자 한 자 써 내려간 이 작품은 단순한 서예를 넘어 신앙과 인내, 그리고 예술적 집중력이 결합된 결과물로 평가된다. 관람객들은 압도적인 규모와 함께 작품이 지닌 묵직한 메시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김 작가는 “처음에는 글씨를 잘 쓰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붓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었다”고 말하며, “이번 전시는 거창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오랜 시간 붓과 함께해온 한 사람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자리”라고 전했다.

개막일에는 현장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작가는 오프닝 당일 이벤트 홀에서 라이브 서예를 선보이며, 정적인 작품을 넘어서는 생동감 있는 예술의 순간을 관객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갤러리 관계자는 “작품 하나하나에 스며든 시간의 흔적을 통해 관람객들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사유와 휴식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며 지역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창순 작가는 한국에서 서예 교육을

받은 뒤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왔다. 부동산, 문학, 방송 등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쌓아온 경험은 그의 작품 세계에 깊이를 더해왔다. 특히 시집 출간과 문예 공모전 수상 등 문학 활동도 병행하며 예술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전시는 오랜 세월 한 길을 걸어온 작가의 내면과 예술 세계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시 정보
전시명: 김창순 서예전 ‘붓이랑, 먹이랑, 세월이랑’
전시 일정: 4월 18일(토) - 24일(금)
오프닝 퍼포먼스: 개막 당일 진행
장소: E.K 갤러리 (LA 한인타운 인근)
1125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문의: 323-541-5603, 이윤준 기자

유튜브부터 AI 영상·작곡까지, AI 방송 아카데미

5월 13일(수) 부에나파코교회서 유튜브 허당그레이스, 마루네 패널로 참여

CPU AI 설교연구소와 세계한인 기독교인론포럼(세기연), 미주복음 방송(KGBC)이 공동 주관하는 ‘AI 방송 아카데미’가 5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에나파코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강좌는 ‘유튜브 기획·촬영·편집부터 AI 영상·작곡’을 다룬다. 오전 세션에서는 CPU AI 설교연

구소장 이세영 박사가 강사로 나서 교회 콘텐츠 도달률을 높이는 전략을 강의한다. 이어 패널로는 구독자 14만 9천 명의 ‘허당그레이스’와 9만 7천 명의 ‘마루네’가 참여해 채널 성장 과정과 알고리즘 활용 노하우를 공유한다. 두 유튜브 모두 비전공자로 시작해 높은 구독자 수를 확보한 사례로, 미디어 사역 입문자들에게 현실적인 방향과 동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후 세션은 미주복음방송(KGBC) 프로듀서이자 전 한국



CTS 프로듀서인 이윤희 PD가 진행한다.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활용한 기초 촬영법을 비롯해 구도·조명·음향 세팅 실습, 영상 편집 소프

트웨어 활용법, 유튜브·쇼츠·릴스 등 플랫폼별 전략이 다뤄진다.

목회자, 신학생, 교회 미디어 담당자, 미디어 사역자, 유튜브 선교사를 희망하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행사는 Lilly Endowment Inc.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등록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AI 설교 연구소 웹사이트(www.cpuai.org)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김민선 기자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 장학금 모집 5/31까지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51대 회장 황두하)이 2026년도 장학금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
신청대상은 현재 미국에서 2026년 대학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 제외)으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모범 학생이다.

부모 또는 본인이 5개 카운티 내 거주자(LA County, Orange County, San Bernardino County, Riverside County, Ventura County)여야 한다.

장학금 종류
장학금은 1년 장학생에게는 개인당 \$4,000을 1회 지급하며, 총 30명을 선발한다.

4년 장학생에게는 개인당 \$40,000 지급 하며, 4회 분할 지급하고 2명을 선발한다. (매년 \$10,000씩 4년 지급되고, 4년 장학생 선발은 2026년 대학 입학 예정자들에게만 해당된다.) 4년 장학생 경우, 별도의 가정 방문 상담이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2026년 4월 1일 오후

12시부터 2026년 5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최종 선정자는 6월 9일 (화요일) 개별 통지한다.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참고.

김민선 기자

웹사이트: laklc.org/scholarship/
시상 및 장학금 전달

일시: 6월 23일(화) 오후 6시
장소: 옥스포드 팰레스 호텔 다이내스티홀 (2층)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문의: Los Angeles Koreatown Lions Club 장학금 사업 위원회
이메일 laklc.org@gmail.com

미국 장로교회(PCUSA) 장학금 모집

미국 장로교회(PCUSA)는 사명 수행의 일환으로 보조금 및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 사역 및 교육을 지원한다.

장로교 학부생 장학금
미국 장로교회(PCUSA)는 매년 최대 100명의 대학생에게 장

학금을 제공한다. 지원 자격은 PC(USA) 교인으로서 미국 내 공인된 대학에 정규 과정으로 재학하며 준학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4,000달러이다. 학부생 장학금은 학생 지원 지수

(Student Aid Index)에 따라 결정되는 필요 기반 장학금이다.

장학금 지급 후에도 재정적 필요가 지속될 경우, 학생들은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색인종 학생에게는 2,000달러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지원자의 마감일은 5월 둘째 주 월요일이며 추천서 마감일은 6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PCUSA는 이 외에도 ‘사무엘 로빈슨 장학금’, ‘성경 교육 보조금’, ‘샘 & 헬렌 R. 윌튼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및 GRANT를 지원하

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PCUSA 웹사이트 Home Resources Financial Information Grants & Scholarships 참조.

<https://pcusa.org/grants-scholarships>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청구 활약 열심

신뢰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가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선폴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 a 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원) 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원) 국내이바스 USA 이사장
(전) 남가주 교와업외교문 변호사
(전) 재미발명가협회 교문 변호사
(전) 중부상공회의소 이사장

미주복음방송 35년, 감사로 돌아보고 사명으로 나아가다!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은 4월 8일(수) 오후 7시 30분, LA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에서 개국 35주년 감사예배 및 이사장이·취임식과 '2026 나눔On 지원금 전달식'을 함께 진행했다.

흔들리는 시대, 변하지 않는 복음

1부 감사예배는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 김도일 목사(미주복음방송 이사)가 사회를 맡았고,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로 시작했다.

이어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남성수 목사(미주복음방송 이사)의 대표기도가 이어졌다. 남 목사는 미주복음방송이 복음의 전초기지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며, 남가주를 넘어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진리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기도했다.

대표기도에 이어 방송곡이 제작한 '개국 35주년 기념영상'이 상영됐다. 1991년 2월, 소명 하나로 남가주에 첫 전파를 송출한 날부터, 재정 위기와 시대 변화의 파고를 넘어 이민 사회와 세계 선교를 잇는 복음의 통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35년의 궤적이 스크린 위를 지나가는 동안 숙연함과 감사가 교차했다. 이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영상 축하 메시지가 상영됐다.

설교는 9년간 이사장직을 맡아 미주복음방송과 동행해 온 한기홍



미주복음방송 개국 35주년 감사예배 및 이사장 이·취임식과 '2026 나눔On 지원금 전달식'. ©GBC

목사(은혜한인교회, 전임 이사장)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전했다.

한 목사는 경제, 건강, 국제 정세 등 끊임없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강조하며, 미주복음방송이 지난 35년간 그 복음을 전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길 당부했다.

사명의 계승, 새로운 리더십

미주복음방송 이세영 부사장의 사회로 2부 '이사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9년간 이사장으로 섬긴 한기홍 목사가 임임을 전하고, 신임 이사장 진유철 목사와 신임 부이사장 송병주 목사가 취임사를 나눴다.

한기홍 목사는 "그동안 기도로 섬길 수 있어 감사했다.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는 신임 이사장을 세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미주복음방송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이어가길 축복했다.

진유철 신임 이사장은 "미주복음방송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의 강력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시대의 다윗의 물뿔들로 쓰임받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사명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신임 부이사장 송병주 목사는 "겸손히 돕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전하며, "미주복음방송이 이민사회 속에서 복음의 강물처럼 흘러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가길 바란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이어 민종기 목사는 축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신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십을 축복했고, 고승희 목사는

권면을 통해 "미주복음방송이 많은 영혼과 가정을 살려온 사역을 이어, AI 시대에도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눔으로 이어진 복음의 실천

이날 함께 진행된 '2026 나눔On 지원금 전달식'에서는 총 \$165,000의 후원금이 국내외 선교지와 지역 사회 단체에 전달됐다. 박해 가운데 있는 해외 교회들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다양한 선교 단체와 금융 사역 기관들이 함께했다.

이영선 사장은 사역보고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난 시간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전임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사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폐회는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송 목사는 미주복음방송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확장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했다.

미주복음방송은 1991년 개국 이후 35년간 미주 한인 사회와 함께 하며 복음을 전해왔으며, 앞으로도 라디오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복음 전파와 나눔 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토마스 멩 기자



우리가교회 화중부 목사 초청 말씀사경회

우리가교회(김은광 목사, 백승유 목사 공동 목회)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를 초청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라는 주제로 2026년 말씀사경회를 연다.

일정 4/17(금) 7:30pm 계2:8-11 교

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4/18(토) 7:30pm 계3:1-6 그 날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4/19(주일) 1부 9:00am, 2부 11:00am 계3:7-13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말라

4/20(월) 화중부 목사의 목회자 세미나는 세계선교교회(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에서 10:00am - 12:00pm에 진행된다.

화중부 목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후 내수동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겼다. 그 후 영국 에딘버러대학교에서 교회사(Th.M.)을 전공하고 옥스퍼드 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사역했다. 2012년부터 남서울교회에서 섬기고 있다. 현재 한국 WEC국제선교회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며 남북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결을 모색하는 남북나눔 이사, 통일선교아카데미 공동대표로도 섬기고 있다.

우리가교회 1060 Crenshaw Blvd 2층, Los Angeles, CA 90019 <https://woorigachurchla.org/> 문의: 323-610-6989 woorigachurch_la@gmail.com

주디 한 기자

새생명오아시스교회 창립 20주년 장학봉 목사 초청 부흥회

새생명오아시스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장학봉 목사(성안교회 담임)를 초청해 4월 24(금)-26(주일)까지 부흥회를 개최한다.

창립 20주년 기념 및 임직예배는 26일(주일) 오후 3시에 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부흥회 일정 4월 24일(금) 오후 7:30 4월 25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4월 26일(주일) 1부 예배(8시 15분), 2부 예배(9시 50분), 3부 예배(11시 30분)

주디 한 기자

주님의 영광교회 황일구 목사 이승희 목사 부흥집회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가 오는 황일구 목사와 이승희 목사를 초청해 부흥집회를 개최한다.

황일구 목사(대구 물뿔교회) 초청 부흥 집회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본질을 회복하라!"(계 2장 4절)라는 주제로 열린다. 4/17(금) 7:30 pm, 4/18(토) 7:30 pm 4/19(주일) 주일 1부/ 2부/ 3부

이승희 목사(반야월교회 담임) 부흥집회는 "다시 새롭게!"를 주제로 4월 23일(목)부터 26일 주일까지 열린다.

이승희 목사 부흥집회 일정 4/23일(목) 7:30 pm 4/24일(금) 7:30 pm 4/25일(토) 7:30 pm 4/26일(주일) 1부, 2부, 3부 예배

NEW LIFE OASIS CHURCH 새생명오아시스교회 WWW.NEWLIFEOASIS.ORG TEL. 323.730.7000

창립 20주년

부흥집회 및 임직예배



부흥집회

"다시 새롭게"

강사: 장학봉 목사 (한국 하남성안교회 담임)

4월 24일(금) 7:30PM 25일(토) 6:00AM / 7:00PM

4월 26일(주일) 1부 8:15AM / 2부 9:50AM / 3부 11:30AM

임직예배

04.26.2026 / 3:00PM

시무장로임직 김주환, 이제임스

장로취임 황관창

시무권사임직 김복중, 김성희, 유클로이, 이해정, 홍현숙

시무안수집사임직 김필, 박규태, 오윤상

권사취임 김지민, 김학례, 심은영

시무장로은퇴 김성한, 서영완, 윤성원

뮤지컬 '신 천로역정' 사흘간 5천 명 관객 몰려

은혜한인교회 문화사역국(국장 / 장순범 장로, 담당 교역자 / 김현철 목사)이 준비한 뮤지컬 '신 천로역정(부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공연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주연, 조연 배우 26명, 아역배우 15명, 스테프 40명이 참여한 이번 공연은 총 8막으로, 약 2시간동안 상연됐다.

각 막마다 구성에 맞는 배경을 스크린 영상으로 연출했고 6막 중간에 은혜한인교회 문화사역팀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삽입하는 실험적 구성을 시도했다.

'신 천로역정'은 원작의 흐름과 구성을 따르면서도 이 작품을 감독하고 극본을 쓴 김현철 목사의 현대적인 각색이 추가되었다. 극의 40%는 원작을 반영했으며, 60% 정도는 새로운 현대적 에피소드가 첨가됐다. 예를 들어, 주인공 크리스천이 '동성



은혜한인교회에서 진행된 뮤지컬 신 천로역정 공연. ©은혜한인교회 문화사역국

애자'와 조우하고, '팩트체커'와의 만나며, 고전에 나오는 수다쟁이와 무지라는 캐릭터를, 오늘날의 인물로 재설정했다.

2막에서 '선의'가 화살을 쏘는 장면에서는, 악한 영들을 정확하게 명중하는 순간을 음향효과로 연출했다. 5막에서 '마귀 아블로온'의 분장

으로 악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공포감을 자아냈다. 6막의 '수다쟁이'는 세상 문화에 빠져버린 대학 교수의 한 전형을 보여줬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연기자 한은 경 집사는 오랜 경력의 프로 배우로, 작품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를 깊이 있는 연기로 전달했다. 이 외에도 자애역에 미셸 리 집사, 믿음역에 다니엘 박 집사, 전도자역에 전승용 집사 등이 극을 이끌어 나갔다.

18곡의 안무와 15곡의 순수창작 신곡들을 선보였으며, 2곡의 군무는 약 어린이 30여 명과 어른이 함께 공연했다. 아이들과 공연을 관람한 한 가족은 공연 후에 은혜 한인교회 더 블레싱 팀(3세대 찬양과 율동팀)에 등록을 요청하기도 했다.

사흘간 약 5천여 명이 관람했으며, 매회마다 본당 로비에는 시작 1시간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관객들의 줄이 이어졌다.

은혜한인교회 문화사역국은 2027년 다음 작품으로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Eternal Life)'를 준비 중이다. 새 작품의 연습은 8월 말경 시작되며, 2027년 6월에 공연될 예정이다. 작품에 참여를 원하는 이는 총무 미셸 리(714-323-0802)로 연락하면 된다.

주디 한 기자

남가주교협 제56대 이사회 춘계단합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56대이사회가 4월 14일(화) 오전11시 30분에 춘계단합회를 열었다.

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 故 허경삼 목사 별세

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 故 허경삼 목사가 지난 4월 9일(목) 오후 12시 55분, 향년 10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인은 황해도 장연군 출신으로, 1950년 서울신학대학 졸업하고 1965년 국제대학 영문과 졸업했다. 1968년 Asbury Theological Seminary를 거쳐, 1981년 Fuller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했다.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로 섬기고, 1977년 동양선교교회 부목사를 거쳐 1979년 오렌지 중앙성결교회 개척했다. 1993년 오렌지 중앙성결교회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됐다.

1982년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내며 성결교회의 터를 닦기 위해 힘썼다.

미주성결교회 총회는 "고인의 헌



미주성결교회 전 총회장 故 허경삼 목사

신과 믿음의 발자취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도전을 남겼다"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유가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위리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는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틀 다빈치 엔터프러너스 청소년 아트 전시회

풀러턴의 비영리단체인 LDVE가 4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풀러턴 커뮤니티 센터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 아트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풀러턴 시장이 참석해 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시상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비영리 단체인 리틀 다 빈치 엔터프러너스(Little Da Vinci Entrepreneurs, LDVE)는 비영리 단체로, "예술을

통해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설립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LDVE는 어린이를 위한 자원봉사 미술 수업을 비롯해 지역 주민을 위한 아트 워크숍, 시니어 및 커뮤니티 센터 방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봉사 프로젝트를 통해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LDVE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이메일(ldvolunteers@gmail.com), 웹사이트(ldve.org), 인스타그램(@ldve.volunteers)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자원 봉사자 아트 전시회 4월 26일 오후 3시 30분 - 6시 풀러턴 커뮤니티 센터: 340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선한목자교회 김병삼 목사 초청 부흥회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는 5/8(금) 7:30 pm 오는 5월 6일(금)부터 5월 10일(주일)까지 김병삼 목사(한국 만나교회)를 초청해 봄 부흥회를 연다.

아버지 밥상교회(홍리스미션)
 홍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오징어 김밥/참치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무료 딜리버리
 10pcs 한줄 \$4.50 60줄 이상 주문가액
주문의 949-330-9033

목사님, 초청합니다!

예배소서를 설교하는 새로운 관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은 목사님의 효과적인 사역을 섬기려 다음과 같은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불리는 에베소서를 살피면서 에베소서 설교를 공부하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살피려 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축복된 시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제 : 에베소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일시: 2026년 6월 1일(월) 오전 10시~ 오후 2시
 장소: 남가주 새누리 교회 (975 S Berendo St, LA, CA 90006)
 대상: 현역 목회자 20분 모십니다.
 등록 및 문의: 323-578-7933



강사: 박성근 목사
 남가주 새누리 교회 담임목사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대원 신학 석사 Ph.D

주관 : 월드쉐어USA 바나바 사역팀(강태광 목사, 이인규 목사, 민경엽 목사)
 후원 : 미주 침례신문,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USA
 (323)578-7933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강신욱 M.D / 김남주 N.P / 김민성 M.D / 김영래 M.D / 김인자 M.D / 김진세 M.D / 김태원 M.D / 김학준 M.D / 대니얼 김 M.D
 박수영 M.D / 박윤석 M.D / 박중원 M.D / 성동진 M.D / 손동수 M.D / 송홍우 D.O / 신예용 D.O / 안우성 M.D / 양진홍 M.D
 오희용 M.D / 윤은주 M.D / 이용태 M.D / 이익준 M.D / 이현녕 M.D / 이현주 M.D / 임대순 M.D / 임승하 M.D / 정만길 M.D
 제인 공 M.D / 조아라 M.D / 조이스리 M.D / 찰스 김 M.D / 최지나 F.N.P / 프랭크 최 D.O / 허준 M.D / 헬렌 강 M.D / 황인용 M.D

당신의 주치의[♡] 당신의 이웃입니다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3098

“무효된 위임으로 20년 못채워” 오정현 목사 원로 추대 논란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12일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담임목사를 내년 1월부터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로 했다. 오 목사는 올해 말 은퇴한다.

교회 측은 이날 4차례의 주일예배 중 오 목사에 대한 원로 추대 투표를 실시했고, 개표 결과 96.2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오 목사에 대한 자격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과거 법원 판결을 적용할 경우 오 목사는 원로목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의 핵심은 ‘20년 이상 위임 목사 시무’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헌법상 요건이다. 원로목사는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적법한 위임목사’로 시무해야 하는데, 오 목사의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위임 자체가 법원에서 무효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오정현 목사에 대한 사랑의교회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인 지난 2019년, 오 목사(왼쪽)가 다시 진행된 위임식에서 서약을 하고 있다. ©기독교일보 DB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판결에서 “피고 오정현이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를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위임 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오 목사의 목사 자격을

부정한 이유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오 목사가 다른 교단 목사로서 편목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 자격의 일반편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편입 경로에 요구되는 목사고시 합격과 목사 안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교

단 헌법상 목사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2019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오 목사의 2003년 위임은 법적으로 ‘처음부터 무효’로 확정된 셈이다.

교회 측은 총회 ‘편목 특별교육과정’ 이수과 재위임 절차를 통해 자격 문제가 보완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이후 시점’의 문제일 뿐, 과거 시무 기간의 법적 성격을 소급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특히 법원이 명확히 “교단 헌법에 따른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동일 교회에서의 장기 시무를 근거로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것은 판결 취지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오정현 목사의 편목 과정을

문제 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던 사랑의교회갱신공동체 측은 이번 원로목사 추대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갱신공동체는 사랑의교회 설립자인 옥한흠 목사의 제자후련과 교회갱신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다.

갱신공동체 대표인 김근수 집사는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고, 오 목사가 2019년 재위임 절차를 밟은 만큼 위임목사로서 그가 사랑의교회에서 시무한 기간은 고작 7년 정도”라고 했다.

김 집사는 “만약 오 목사에 대한 원로목사 추대 결의가 노회에서까지 받아들여진다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오정현 목사는 2019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원로목사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그에게 교회 재정으로 원로목사 예우를 할 경우 이를 배임죄로도 따지겠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2026 사모 리조이스 “사모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

목회자 사모들의 쉼과 회복을 위한 ‘2026 사모리조이스’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오륜교회와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참가 경험이 없는 1962년생부터 1982년생까지의 목회자 사모 500명에게 정서적·영적 회복의 시간을 제공했다.

‘사모리조이스’는 오륜교회가 목회 현장의 동역자이자 영적 동반자인 사모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해 온 집회로, 예배와 강연, 문화 프로그램을 결합한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전 행사들 역시 큰 호응을 얻으며 사모들의 치유와 재충전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2026 사모리조이스’는 ‘With U, 나의 사랑, 나의 여여쁜 자야’(아가 2:10)를 주제로,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사모들을 향한 위로와 동행의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예배를 비롯해 콘서트, 강연, 토크쇼 등이 마련되며 참여자들이 영적 회복과 정서적 치유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 예배와 문화 프로그램 결합... 다양한 일정 진행

행사 첫째 날인 13일에는 ‘With U 콘서트’가 열려 정영영, 진영환, 퀘벳, 러비, 아카펠라 제니스 등이 무대에 올랐다. 음악을 통한 위로와 감동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이어진

힐링 강좌에서는 박상미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사모들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도왔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트롯 가수 류지광의 콘서트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긴장을 풀고 정서적 활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지는 예배를 통해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이어졌다. ‘2026 사모리조이스’는 이처럼 예배와 문화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구성해 사모들의 전인적 회복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김은호 목사 “사모의 회복이 곧 한국교회의 건강으로”

말씀을 전한 오륜교회 김은호 설립목사는 사모들의 현실을 언급하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한 신문에서 사모님들 67%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며 “사모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목사들 또한 건강해 질 수 없고, 목회자의 건강은 곧 한국교회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했다.

이어 “사모들의 섬김으로 교회가 축복을 받아왔고, 그 이유는 사모들이 기도의 용사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가서에 등장하는 솔라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자존감 회복에 미치는 의미를 설명했다. 김 목사는 “솔라



서울 오륜교회와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6 사모리조이스’에 참여한 사모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륜교회 제공

미 여인은 스스로를 계달의 장막과 같고, 햇볕에 그을린 존재로 표현하며 열등감을 드러냈지만, 솔로몬은 그를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말했다”며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고 당당해진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사모들이 신랑 되신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열등감과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박요한·우미셀 목사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Her’ 공감 토크

쇼가 진행됐다. 이 시간에는 사모로서의 삶과 사역, 가정과 교회 사이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이 공유됐다.

오륜교회 주경훈 담임목사도 목회자 사모들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하며,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주 목사는 사모의 삶을 때론 ‘겨울’에 비유하면서도,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

조했다. 주 목사는 “목회자의 사모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겨울의 때서운 추위와 같은 시간들을 마주하기도 한다”며 목회 현장에서 사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러한 사모님들을 위해 새롭고 따스한 봄날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고 독려했다.

특히 이번 ‘사모리조이스’ 행사가 사모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주 목사는 이 행사가 사모들에게 약속된 ‘따스한 봄날’과 같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광스럽지만 고난이 따르는 그 길을 걷는 사모님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걷게 하지 않으신다”며 “사모님들께 처음 주셨던 그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연, 김한우,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우,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환,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 발행인 : 이인규

■ 이사장 : 폴킴

■ 편집국장 : 맹창현

■ 고문변호사 : 정찬용

■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daily.com

■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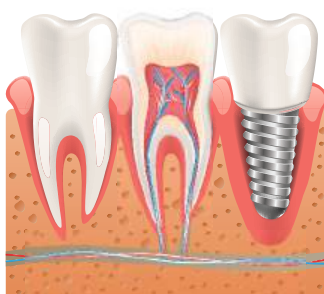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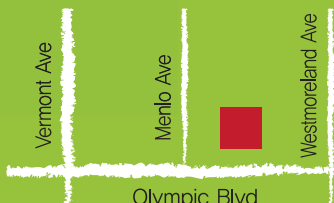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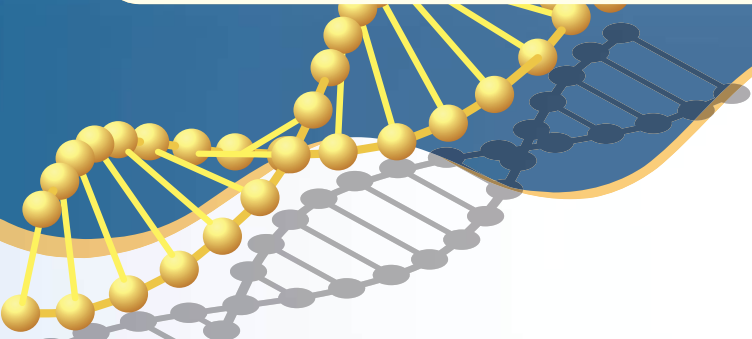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사람을 살리는 슈퍼푸드, Teloyouth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벨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Teloyouth의 특징

- 온몸의 세포 기능과 구조,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회복
- 생체나이 검사에서 13년 젊어진 사례
- 재구매율 91%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12가지 글로벌 품질인증
- 6가지 임상실 (독일 대학교, 콜로라도 대학교, 마이애미 대학교, 노르웨이 병원 등)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이**님: 심장수술, 췌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졸중이 오며 워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 W**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발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F**님: 공황장애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 R**님: 갱년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났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이상 나오지 않네요
-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 하*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뿔뿔 솟습니다.
-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걸 기적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우울증개선 Blefgeil Hospital, Kongsberg, Norway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세포 신호 기술력으로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36배 생산 · 배출 · 활성화하여 건강 회복에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 더 이상 건강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 Teloyouth 12개월 젊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마음의 재생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줄기세포 사업 소개

- 5월 9일(토) 오후 2시
- 예약 필수
- 문의 : 714-732-8477 폴 킴 수석코치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 폴 킴 (TeloYouth 수석코치)

☎ 714-732-8477



TELOYOUTH

www.TeloHealing.com

창세기 천지창조, 과학적 사실인가 신앙고백인가?

한국신학아카데미(원장 김균진)가 10일 오후 서울 안암동 세미나실에서 '창세기의 천지창조, 과학적 사실인가 신앙고백인가?'라는 주제로 2026년 봄학기 1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김균진 원장(연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창주 교수(전 한신대 구약학)가 발제를 맡고, 박영식 교수(서울신대 조직신학)가 논평에 나섰다. 세미나는 창세기 해석을 둘러싼 오랜 논쟁을 재조명하며 창세기 천지창조의 성격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창세기 천지창조 해석의 역사와 과학과의 긴장

김창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오랜 기간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텍스트로 이해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세교회가 성서의 무오성을 강조하며 문자적 해석을 기독교 진리의 기초로 삼았고, 이에 따라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가 실제 창조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이러한 이해는 오랜 시간 교회의 신앙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항해 시대 이후 자연과학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통적



한국신학아카데미 2026년 봄학기 1차 학술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장지동 기자

인 성서 중심 세계관은 도전에 직면했다"며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과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이 기존의 성서적 우주관과 긴장을 일으켰고,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며 기독교와 성서의 비합리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확산되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실제 우주의 시작을 기록한 것인지, 창조의 '하루'가 문자 그대로 24시간인지, 창조 이전의 상태가 절대적 공허였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제기되며 성서는 비관적 탐구의 대상으로 확장되었다"고 덧붙였다.

◇ "창세기 창조 서술은 과학 아닌 신학적 고백"

김 교수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가 특정한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신앙고백의 성격을 지닌다"며 "창조 모티브가 창세기뿐 아니라 구약성서 여러 문헌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창세기 1장은 문학적으로 압축적이고 선명하게 서술되어 실제 사건 기록처럼 읽히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창세기가 성경의 첫 책 첫장에 위치한 점이 신앙인들로 하여금 이를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생성론으로 이해하게 만들었고, 이는

신학과 과학 사이의 긴장을 지속시키는 배경이 되었다"며 "그러나 현대 성서학은 창세기의 창조 서술이 자연과학적 우주 기원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진술이자 믿음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창조 신학이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의 역사적 위기 속에서 형성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왕국의 멸망, 강제 이주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 선포했다"며 그는 이를 "치열한 신학적 전략이자 확고한 믿음의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 창세기의 신학적 의도와 '신앙의 선언'

김 교수는 "창세기가 구약성서의 서두에 배치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며 "이는 멸망의 위기 속에서 형성된 신학적 성찰의 결과이다.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우주의 물리적 기원을 설명하려는 과학적 기록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선포하는 신학적 선언"이라고 했다.

또한 "창조의 순간은 인간이 목격할 수 없는 영역이며, 창세기의 창조 서술은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공동체가 신앙으로 해석한 고백"이라며 "이를 전문학적 기록이나 우주 연대기로 읽는 것은 본문의 맥락을 벗어난 문자적 이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조선왕조실록에 초신성 기록이 있다고 해서 이를 과학서로 보지 않는 것처럼, 창세기가 창조를 언급한다고 해서 과학 교과서로 볼 수 없다"며 "과학의 도전 속에서 흔들렸던 창조 이해가 다시 신학적 성찰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되었으며,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역사 속에서 선언한 믿음의 헌장"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창세기의 천지창조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임을 선포하는 담대한 신앙이며 토라의 신학적 방향"이라고 정리했다.

◇ "성경 해석, 개방성과 지속적 토론 필요"

논평에 나선 박영식 교수는 김창주 교수의 발제가 창세기를 넘어 성경 전체의 창조 이해와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논문이 오늘날 신학이 창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과 토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발제와 논평 이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마무리됐다. 장지동 기자

주민 100명 마을에 3,500명 출석... 세계로교회 '세례의 기적'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가 12일 본당에서 2026년 상반기 세례식을 갖고 324명의 세례자를 배출했다.

주민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해 현재 3,500명 이상의 성도가 출석하는 세계로교회는 매년 기록적인 세례자 수로 교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1993년 손현보 목사 부임 당시 30명에 불과했던 출석 인원은 30년 만에 100배 이상 성장했다. 2024년 한 해에만 702명이 세례를 받았다. 교회 측은 "이번 상반기 324명의 결실 또한 성도들의 눈물어린 헌신이 일궈낸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부흥의 핵심 동력은 평신도들의 '생활 밀착형 섬김'에 있다"면서 사례를 제시했다. 이 교회 김현아 집사는 지난해 1,114명을 전도했다고 한다.



세계로교회가 12일 2026년 상반기 세례식을 개최했다. ©세계로교회

대인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내성적이었던 그는 이제 남편 김중상 집사와 온 가족이 동역자가 되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웃을

찾는다고. 그의 손에는 항상 직접 만든 초정장과 콩나물, 두부가 들려 있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김 집사는 "새신자가 교회에 오

면 첫날은 참기름, 둘째 날은 들기름을 선물하며 정성을 다한다"며 "전도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깨닫는 기쁨이 크

다"고 고백했다.

세계로교회의 전도는 일회성 초청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정착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250명 규모의 '전도특공대'가 현장을 누비면, 10명 단위의 '구역 성도'들이 밀착 케어를 시작한다.

특히 주일예배 후 새가족만남실에서 손현보 목사가 직접 진행하는 신앙 상담은 결신의 핵심 고리다. 세례 이후에도 손 목사의 강의와 장로 가정들의 섬김이 더해지는 '제자반'을 통해 새가족은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성숙한 신앙인으로 뿌리내린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교회 측은 올해 총 1,000명의 세례자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숫자의 위용보다 한 영혼을 천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겠다"는 것이 세계로교회의 다짐이다. 김진영 기자

커피와 예술이 만나는 공간!

Cafe du Gallery & E.K. Art Gallery

영업/시간 월~토: 9AM~7PM(일요일 휴무)

E.K. ART GALLERY

http://www.ek-artgallery.com/

문의 : 323-272-3399

1123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1. 말차 라떼·K-스타일 빙수와 함께 즐기는 전시 감상!
2. 넓고 시원한 공간, 식물과 예술이 어우러진 감각적 카페!
3. LA 코리아타운 한복판에서 즐기는 예술 같은 휴식!
4. 작업하기 좋은 와이파이·주차 가능·친절한 서비스!

CAFE du GALLERY

www.cafedugallery.net

인도 불가촉천민 기독교인 '보호 사각지대' 우려

인도 대법원의 최근 판결로 인해 이른바 '불가촉천민'으로 불리는 달리트 출신 기독교인들이 헌법상 보호와 우대 조치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 사회에서 달리트는 전통적인 카스트 제도 최하층에 속해 오랜 기간 극심한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인도 헌법은 교육기관 입학, 공공부문 고용 등에서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 제도를 통해 이들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힌두교, 시크교, 불교 신자만을 법적으로 지정 카스트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기독교로 개종한 달리트들은 기존에 누려 왔던 차별 시정 정책과 사회적 보호 장치의 혜택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인도에서는 카스트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 기독교나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선택이 오히려 사회적 안전망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일부 개종자들은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야 하는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음에도, 실질적인 선택의 폭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 재판부는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기독교는 그 신학적 토대상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성구를 언급했다.

이는 기독교 교리가 카스트 구분을 부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현실에서 개종자들이 겪는 차



▲인도 대법원. ©Creative Commons

별과 법적 보호의 공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의 현지 파트너는 "인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개종 이후에는 카스트 기반 차별로부터의 법적 보호가 제한된다"며 "이번 결정은 기독교 공동체를 더욱 취약한 위치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달리트 및 부족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미 신체적 폭행, 사회적 배척, 허위 강제 개종 등 다양한 박해를 겪어 왔다"며 "이번 판결이 적대적 분위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기독교로 개종한 한 남성이 카스트 기반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앞서 고등법원은 "해당 인물이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선택한 이상, 카스트 기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미경 기자

니카라과, 2025년 종교 차유 침해 사례 309건으로 급증

니카라과에서 2025년 발생한 종교 차유 침해 사례는 전년도 222건에서 30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이하 CSW)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니카라과에서 자의적 구금, 종교시설 내부 활동 감시, 공개 종교 활동 금지, 그리고 종교기관을 포함한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의 법적 지위 박탈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CSW의 옹호 담당 이사이자 미주 팀 리더인 안나 리 스탕글(Anna Lee Stangl)은 "니카라과 정권이 일부 전략을 바꾸긴 했지만, 본질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며 "이는 자신들의 권위와 생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모든 이를 통제하고, 회유하며,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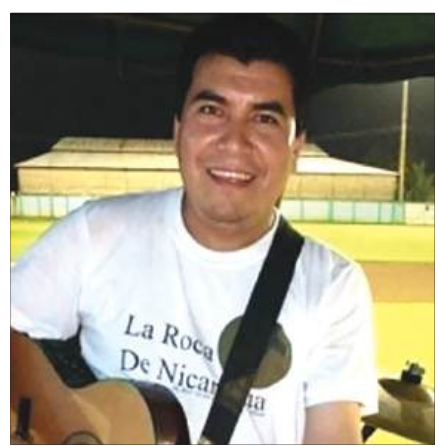
보고서는 카라소주 히노테페 소재 '라 로카 데 니카라과 교회 협회' 설립자인 루디 팔라시오스 바르가스(Rudy Palacios Vargas) 목사의 체포를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그는 2018년 평화 시위대에 대한 정부의 폭력 행위를 비판하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위해 기도한 이후 당국의 표적이 돼 왔다.

보고서 '쉬는 시간도 없다: 니카라과에서 더욱 심화되는 탄압의 또 다른 한 해'에 따르면, 바르가스 목사는 지난해 7월 17일 다른 인사들과 함께 자의적으로 구금됐다. 당시 복면을 쓰고 무장한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영장 없이 그의 자택과 가족, 지인들의 집에 강제로 진입해 체포를 진행했으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도 압수했다.

구금된 이들의 가족은 약 6개월 동안 그들의 행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보고서는 "이는 사실상 '강제 실종'에 해당된다"고 평가했다.

함께 구금된 정치 활동가 마우리시오 알론소 페트리(Mauricio Alonso Petri)는 8월 구금 중 사망했으나, 당국은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부검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1월, 바르가스 목사와 일부 가족은 가택 연금 상태로 석방됐지만, 여전히 감시를 받으며 이동이 제한된 상태다. 일



▲2025년 니카라과에서 영장 없이 체포된 루디 팔라시오스 바르가스 목사. ©SNS

부 인원은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해 보고해야 하는 '예방 조치' 대상이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침해 사례 309건 가운데 개신교 신자가 108건, 로마가톨릭 신자가 200건의 피해를 입었다. 나머지 1건은 종교 문제를 취재한 비종교 언론인이 표적이 된 사례였다.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자 공동 대통령인 로사리오 무릴로(Rosario Murillo) 정권은 종교 활동 전반에 대한 공개·비공개 감시를 강화해 왔다. 보고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설교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단결, 정의, 수감된 종교 지도자를 위한 기도, 국내외 정세에 대한 언급조차 정부 비판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주 경찰서 출석, 활동 사전 보고, 이동 시 허가 무 등을 포함한 '예방 조치'를 점점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2024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36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통적인 가톨릭 행렬을 비롯해 성서의 날 관련 행사 등 주요 공개 종교 활동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다. 과거 공공 장소에서 진행되던 종교 활동은 교회 내부로 제한됐으며, 이마저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미인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천안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LA백송교회
합회회칙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김성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월요일 0시) 오전 6시
3부예배(새세대예배) 오전 11:30 (화-토)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드림 온라인 오후 8시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승수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일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전 9:00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나눴다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엘리아 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8 수요청년부/드림 오전 10:00 분당

CMC 종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C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동양선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fice1@gmail.com

김지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 교회의 생명이며 사랑과 화평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서사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2부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세계선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한현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한현중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총현선교회
블러시(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tron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국윤권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곽부현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한국교회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김은광 목사 백승우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org

김은광 목사 백승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토) / 6:0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형영 담임목사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3부 EB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호민 담임목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토) / 6:00(토)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이형영 담임목사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나,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가명훈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방상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정유성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c.org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장미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여대대학원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토)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리구구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종교개혁 기념 예배 오전 9:30(목)
제자서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애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개혁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여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전교인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성령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토/주일) 새벽 6:00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부흥회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유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구경모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애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최원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령집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온라인)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한 학생이 침례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CBN뉴스 캡처

‘자정 넘어서까지 침례 이어져’ 美 샘포드대 축구장, 임시 침례 장소로

미국 샘포드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대형 전도 집회를 계기로 대학 미식축구 경기장이 임시 침례 장소로 활용됐다. 미국 CBN뉴스에 따르면, 최근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유나이티드어스'(UniteUS)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며, 일부는 침례를 통해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했다.

행사는 지난 4월 8일 미국 버밍엄에 위치한 피트 한나 센터에서 열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64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침례식은 자정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유나이티드어스 설립자인 토나 프레웨트는 "수많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품어 온, 용서하지 못한 감정과 중독에서 벗어났고, 다양한 간증이 이어졌다"며 "침례식이 자정 이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는 예배와 헌신, 그리고 결단이 어우러진 자리였다"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앙을 표현하고 공동체적 경험을 나눴다"고 전했다.

유나이티드어스는 최근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이어지고 있는 영적 집회의 흐름 속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플로리다주립대학교와 피츠버그대학교에서도 유사한 집회를 개최했으며, 각각 수백 명 규모의 결단과 침례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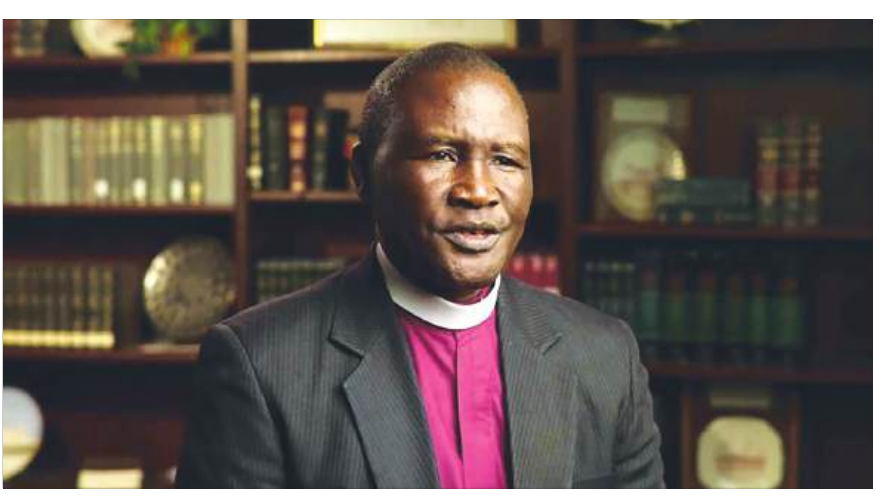
특히 피츠버그 행사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신체적 치유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오늘 밤 수백 명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고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침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캠퍼스에서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며, 오늘 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번 샘포드 집회에서는 학생들뿐 아니라 현장 스태프의 참여도 이어졌다. 프레웨트는 행사 중 경비 담당 직원과 기도한 뒤, 그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후 그는 지역 교회와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이티드어스 운동은 2023년 오번대학교에서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1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다. 주최 측은 이 가운데 수천 명이 기독교 신앙을 따르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나이지리아 세계감리회, 연합감리회와 분쟁 패소에 항소



▲나이지리아 세계감리회 존 페나 아우타 감독. ©YouTube/Global Methodist Church

나이지리아 세계감리회(Global Methodist Church, 이하 GMC)가 연합감리회(United Methodist Church, 이하 UMC)와의 등록 및 자산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패소한 후 나이지리아 법원에 항소했다.

GMC의 존 페나 아우타(John Pena Auta) 감독은 지난 7일 잘링고에 있는 맥브라이드 GM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부자 사법부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하급 법원의 판결을 막아달라는 가치분 신청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우타 감독은 "우리는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법을 준수하는 기관으로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GMC에 활동 및 자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법적 권리가 완전히 있다"며 "이 시간 교회 성도는 침착하게 기도하며 굳건한 자세를 유지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모든 교인과 지지자 여러분은 법을 준수하고 어떠한 형태의 대립이나 공공의 평화를 해치거나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가 달라"며 "지도부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구제와 정의를 추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UMC는 수십 년 동안 동성결혼 축복과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에 휩싸여 왔다. 그러다 지난 총회에서 장정 내 동성결혼 주례와 동성애자 안수, 성소수자 옹호단체 지원 금지 조항을 비롯해 "동성애는 기독교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삭제했다. 이 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지닌 교회들에 큰 충격을 줬고, 약 7,500 교회가 UMC를 탈퇴해 GMC에 합류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동성결혼과 동성간 성행위가 불법이며 시민의 동성애 단체 활동 또한 금지돼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반발이 특히 거센 상황이다.

존 웨슬리 요한나(John Wesley Yohanna) 감독은 2024년 7월 특별 소집 회의를 통해 일부 지역교회가 UMC를 탈퇴하고 GMC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UMC 측은 실제 탈퇴 규모가 전체의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반박했다.

한편 나이지리아 내에서는 감리교단 간 재산과 자원에 대한 분쟁이 계속돼 왔다. 지난해 2월에는 반암 신학대학원에서 양 교단 구성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미국, 성경 읽기 감소했지만 성경 관심도는 증가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가 발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성경 읽기와 참여 수준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성경에 대한 관심과 개방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4년 이후 약 900만 명의 미국인이 성경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결과는 9일 발표된 '2026 State of the Bible' 보고서 첫 장에 담긴 내용으로, 미국인의 성경에 대한 인식과 신앙 실천, 교회 참여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전체 미국 성인 가운데 28%가 성경에 대해 호기심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읽거나 연구하지는 않는 '이동 가능한 중간층(Movable Middle)'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의미 있는 증가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성경 읽기 참여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2025년과 비교했을 때 양상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특히 젊은 남성층을 중심으로 성경 참여가 증가하며 신앙 회복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2026년 조사에서는 성경에 대한 관심은 유지되면서 실제 참여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성경에 대한 관심 증가가 과거 성경에 무관심했던 집단에서 이동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2024년 이후 성경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던 인구가 약 500만 명 감소한 반면 성경에 호기심을 보이는 인구가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적극적으로 성경에 참여하는 인구 비율은 약 17%로,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성경 읽기 경험 높은 비율... 인쇄본과 디지털 모두 활용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성경의 절반 이상을 읽은 경험이 있

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대부분 혹은 전체를 읽었다고 응답했으며 17%는 성경 전체를 읽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성경을 전혀 읽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은 10%에 그쳤다.

성경 이용 방식에서는 종이 성경이 여전히 주요 매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80%는 매달 한번 이상 종이 성경을 읽는다고 답했다. 동시에 디지털 성경 활용도 역시 높게 나타나 전체의 62%가 매달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해 성경을 접하고 있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등 젊은 세대에서는 디지털 방식 이용 비율이 종이 성경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는 종이와 디지털을 함께 활용한다고 답했다.

성경 읽기 습관과 인식 사이 연관성 확인

보고서는 성경 읽기 경험과 성경에 대한 인식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성경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64%는 성경 대부분 또는 전체를 읽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성경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주기 위한 도구라고 인식하는 응답자 가운데 60%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거나 전혀 읽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체계적인 성경 읽기 계획을 따르는 사람일수록 성경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읽기 가이드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응답자의 약 75%가 성경 대부분 또는 전체를 읽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와 사역 위한 참고 자료 활용 기대

이번 조사는 2026년 1월 8일부터 27일까지 시카고대학교 NORC 연구기관이 AmeriSpeak 패널을 활용해 미국 성인 2,6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승연 기자

'더 초즌'시즌 6 오는 11월 15일 美 극장 개봉



더 초즌 시즌 5에서 예수 역을 맡은 달라스 켄킨슨. ©The Chosen

프라임비디오와 5&2스튜디오는 '더 초즌'(The Chosen) 시즌 6을 오는 11월 15일 스트리밍과 극장 개봉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번 시즌은 총 6개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당일 1~3화가 먼저, 이후 12월 6일까지 매주 순차적으로 프라임비디오에서 독점 공개된다. 다만 마지막 에피소드는 스트리밍에 포함되지 않으며, 2027년 봄 전 세계 극장에서 다양한 언어로 개봉될 예정이다. 시즌 6은 예수의 생애 마지막 순간, 특히 십자가형에 이르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제작자 달라스 켄킨슨(Dallas Jenkins)은 "이 시즌은 단순한 사건 재현이 아니라, 그 의미와 선택의 깊이를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의 결과는 알고 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마지막 24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며 "이번 시즌은 그 '이유'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이야기는 단순한 TV 시리즈 한 시즌에 그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며 "결말을 독립적인 장편 영화 형태로 제작하기 위해 처음부터 그에 맞춰 필드 촬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다시 모인 주요 출연진... 감정적으로 깊어진 마지막 여정

예수 역의 조너선 루미(Jonathan

Roumie)를 비롯해, 베드로 역의 샤하르 아이작(Shahar Isaac), 마태 역의 파라스 파텔(Paras Patel), 막달라 마리아 역의 엘리자베스 타비쉬(Elizabeth Tabish), 안드레 역의 노아 제임스(Noah James) 등 주요 배우들이 다시 합류한다.

시리즈가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출연진 역시 이번 여정을 '감정적으로 깊은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파텔은 마태 역을 연기한 시간에 대해 "숨쉴하면서도 달콤한 여정"이라며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간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그는 "이 역할을 통해 예수의 인간적인 면모와 삶에 목격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전했다.

또한 "예수라는 인물에 매료된 이유는 인간미와 유머, 사랑과 돌봄 때문"이라며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아 제임스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팀"이라며 "작품이 끝난 이후에도 이 관계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데우스 역의 지아바니 카이로(Giavani Cairo) 역시 이 작품이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리즈를 통해 또 하나의 가족을 얻었다"며, 다가올 시즌 7에서 그려질 '부활' 장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미셀 기자

1부예배 오전 8:00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d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김지성 담임목사
-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이동부 (1~5학년) 11:00 AM하오현양 예배 토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백기도교회-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KM) 오전 10:30,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EM) 오전 10:30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joon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다니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종교동부(아기들)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예배(민들레)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모임(금)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30(영아)동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대학)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종교동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6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오전11:00 오후 7:30 영어청년부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권덕근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m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현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금요일 5:30 / 토요일 6:00
주일 3부 영아예배 오후 1:00

www.icccla.org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새벽예배(화-금)새벽6:00 박성호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베이커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3 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10:30 Zoom 삼육 오후 7:30
목요일 기도전도 오전 10:00 헌터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Quendoing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vc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요예배) 저녁 7:30
종교동부 주일 오전 11:30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현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lvkcc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k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윤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일오전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새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김광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새춘연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INNEX PRO
Collision Center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FOP SERVICE, INC.
PLUMBING License# 1139798
업체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각종 보험 취급 \$70**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뎅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33년 헌신한 70세 선교사를 감옥에” 러시아에 석방 청원

한국VOM, 22일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5,000여 명 서명 담긴 청원서 제출

복음 전파와 봉사에 평생을 바친 고령의 선교사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구금된 가운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소재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박태연 선교사의 석방과 안전한 귀국을 촉구하는 5,000여 명의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70세인 박태연 선교사는 1993년 러시아 입국 이후 33년간 현지 소외계층과 어린이를 위해 헌신해 온 인물이다. 그는 올해 초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위해 한국행 항공권까지 예매했으나, 출국을 단 일주일 앞둔 지난 1월 15일 하바롭스크에서 전격 체포됐다.

러시아 당국은 박 선교사에게 불법 이주 조직 등 총 3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VOMK 측에 따르면, 해당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대 1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 당국은 구금으로 인해 발생한 비자 기간 초과를 이유로 박 선교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자택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VOMK 에릭 폴리 CEO와 현숙 폴리 대표는 이번 조치를 “명백한 법률 위반

이자 종교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단체 측은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청원 사이트를 개설해 서명 운동을 벌였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브라질, 핀란드 등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박 선교사의 구명 활동에 동참했다.

청원서에는 ▲박 선교사의 무조건적인 석방 ▲안전한 대한민국 귀국 허용 ▲정당한 법적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초기 구금 과정에서 금지되었던 영사 접견권이 청원 운동 시작 이후 회복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꼽히지만, 여전히 4월 말로 예정된 첫 재판을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진행될 청원서 전달 행사는 에릭 폴리 목사와 현숙 폴리 대표는 청원서 전달 전후로 대사관 인근에서 사진 등 록된 매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열고 박 선교사의 최신 근황과 단체의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박태연 선교사 ©한국VOM스

노형구 기자

美 목회자 “건국 250주년 앞둔 미국 기독교적 뿌리 회복해야”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한 목회자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독교적 뿌리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달러스 제일침례교회 담임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는 ‘기로에 선 미국(America at the Crossroads)’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국 당시의 신앙적 토대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프리스 목사는 1787년 헌법제정회의를 언급하며, 독립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 국가의 방향을 논의했지만 의견 충돌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벤저민 프랭클린이 조지 워싱턴을 향해 기도를 촉구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영국과의 전쟁 당시 매일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는 응답받았다”며 “지금 우리가 그 도움을 잊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존 애덤스가 1776년 아내 애비게일에게 보낸 편지를 언급하며 미국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남북전쟁 당시 치카마우가 전투로 막대한 희생이 발생한 직후에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 첫 추수감사절 선언을 발표한 사례를 들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전통을 강조했다.

제프리스 목사는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미국이 기독교적 기반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하면서도, 성경의 종말론에서는 미국이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7년 환난’ 시기에 자유와 민주주의 제도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도덕적 해체, 군사적 충돌, 그리고 ‘이스라엘 고립’을 꼽았다. 특히 2025년 7월 갈릴 여론조사를 인용해 미국 내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결국 이스라엘을 외면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이스라엘의 고립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제프리스 목사는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비판론을 경계하며, 성경에서 모세가 강조한 ‘생명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언급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종교 자유를 지키고, 정부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지도자를 선출하며,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오늘날 미국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더 익숙해진 것은 비극적”이라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부패했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이미경 기자

202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달빛' 검색
유튜브: '달빛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사, 선교학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 전 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 이후 지켜온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la.edu

강준민 칼럼

영혼은 묵상하는 것을 통해 성장합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복 중 하나는 “말씀 묵상”입니다. 묵회 초기에 말씀 묵상을 배운 것이 제 묵회와 설교, 그리고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영혼을 돌보는 데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묵상(默想)”은 한자로 ‘잠잠함 묵(默)’과 ‘생각할 상(想)’의 합성어입니다. 묵상의 ‘묵(默)’은 말을 멈추고 고요히 침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想)’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뜻합니다.

묵상(默想)할 때 ‘상(想)’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 목(木)’, ‘눈 목(目)’, ‘마음 심(心)’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무를 눈으로 자세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 심(心)’이 더해져,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마음

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묵상이란 침묵 가운데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나무 목(木)’에는 십자가(十字架)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묵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결국 십자가(+)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은 영어로 ‘Meditation’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메디타리(meditari)’로, “깊이 생각하다. 되새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묵상은 소가 음식을 먹은 후에 다시 꺼내어 ‘반추(反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Meditation(묵상)’과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Medicine(약)’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약입니다. 약이 몸에 스며들어 병을 치유하듯이,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 영혼에 스며들어 치유합니다. 이 단어의 어근인 라틴어 ‘메데리(mederi)’는 ‘치유하다’는 뜻입니다. 묵상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를 경험합니다. 왜 성경은 말씀 묵상을 강조할까요? 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할까요(시 1:1-3)?

첫째, 영혼은 묵상(默想)하는 것을 통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먹는 것으로 자랍니다. 몸이 음식을 먹고 자라듯이, 영혼은 영적인 음식인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

다. 그러나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잘 소화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읽은 말씀을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읽은 말씀이 우리 존재 속에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면 말씀이 머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할 때, 머리에 있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묵상이 깊어질수록 말씀이 우리 존재 속에 스며들어 내면화됩니다. 나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반복해서 음미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서서 조용히 내면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을 깊이 오래 숙고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깊이 성장하게 됩니다.

둘째, 영혼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시 62:5). 잠잠히 바라본다는 것은 곧 집중을 의미합니다. 섬세한 주의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산만함입니다. 산만함은 불안과 초조를 낳고, 조급함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묵상할 때 우리는 집중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주의력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깊이 초점

을 맞추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롬 8:29).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깊은 변화는 한 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복과 머물름을 통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를 읽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깊은 묵상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뿌리가 얕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얇고 피상적인 삶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깊은 묵상을 통해 자란 영혼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묵상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더 깊이 머물게 하십시오. 조용히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며,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조용한 묵상 속에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진유철 칼럼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오스트리아의 여행가이자 작가인 ‘에른스트 폰 헤세 바르텍’이 쓴 여행기 ‘조선, 1894년 여름’이란 책은 구한말 조선의 모습을 제3세계인의 눈으로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기록한 사료로 높이 평가받습니다. 그는 호텔과 여관이 하나도 없는 나라의 처음이라고 하면서 서울에는 전부 찌르러진 흙집들이었고 2층 이상의 건물이 몇 개 없는 도시라고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수 시설이 전무하여 오물이 길거리에 그대로 방치되었고, 좁고 불결한 골목에는 악취가 진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지저분한 도시 중 하나’라는 혹평도 했습니다. 법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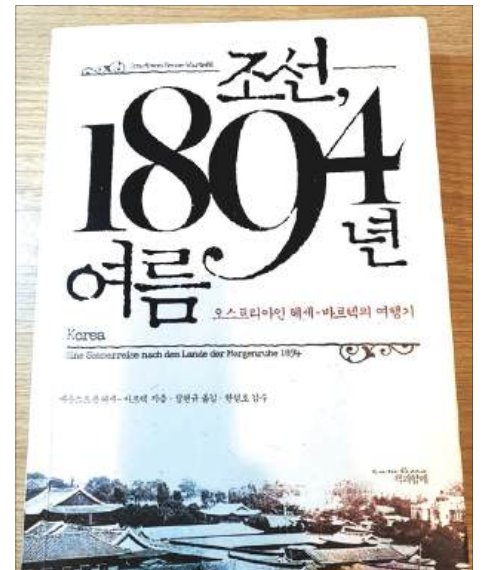
제도가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유지하는 도구로 전략 상황을 꼬집으며, “불쌍하지만 근면한 백성들에게 정직한 정부와 공정한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들은 순식간에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 반 정도가 노비며 천민이고 극빈층으로, 백성들의 평균수명이 35세 안팎에 불과했었다고 서울대의대 황상의 교수는 추정했습니다. 결국은 나라의 주권조차도 빼앗겨버린 것이 바로 우리 앞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들어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육과 의료 등 나라를 살리는 계몽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공의를 위해 순교까지 하며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처음 시작될 때 당시 의장직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목사인 이윤영 의원이 단상에 올라와 기도할 때 모든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동참했습니다. 한국국회의 제1호 기록은 법률이 아니라 기도문

인 나라가 되었고, 또 1948년 7월24일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6월25일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전쟁을 일으킴으로 인구의 10%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고, 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은 건물의 80% 이상이 파괴되었고, 맥아더 장군은 폐허가 된 도시를 보면서 ‘이 나라가 복구되는 데는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로 당시 UN에 가입된 나라들 중 뒤에서 1~2위를 다투던 최빈국으로 에티오피아나 아이티보다 낮았었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도 사 람다 과부가 마지막 가루를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을 붙든 믿음을 증거 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로 세계에서 제일 성장한 교회들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원조를 받던 신생 독립국에서 원조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70년 만에 국민소득이 500배 이상 증가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나라가 되

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33편12)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계속되는 혼란과 문제와 위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또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살람!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 디자인 설계 시공
- Solar & Roof
-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ww.en.kurbanlik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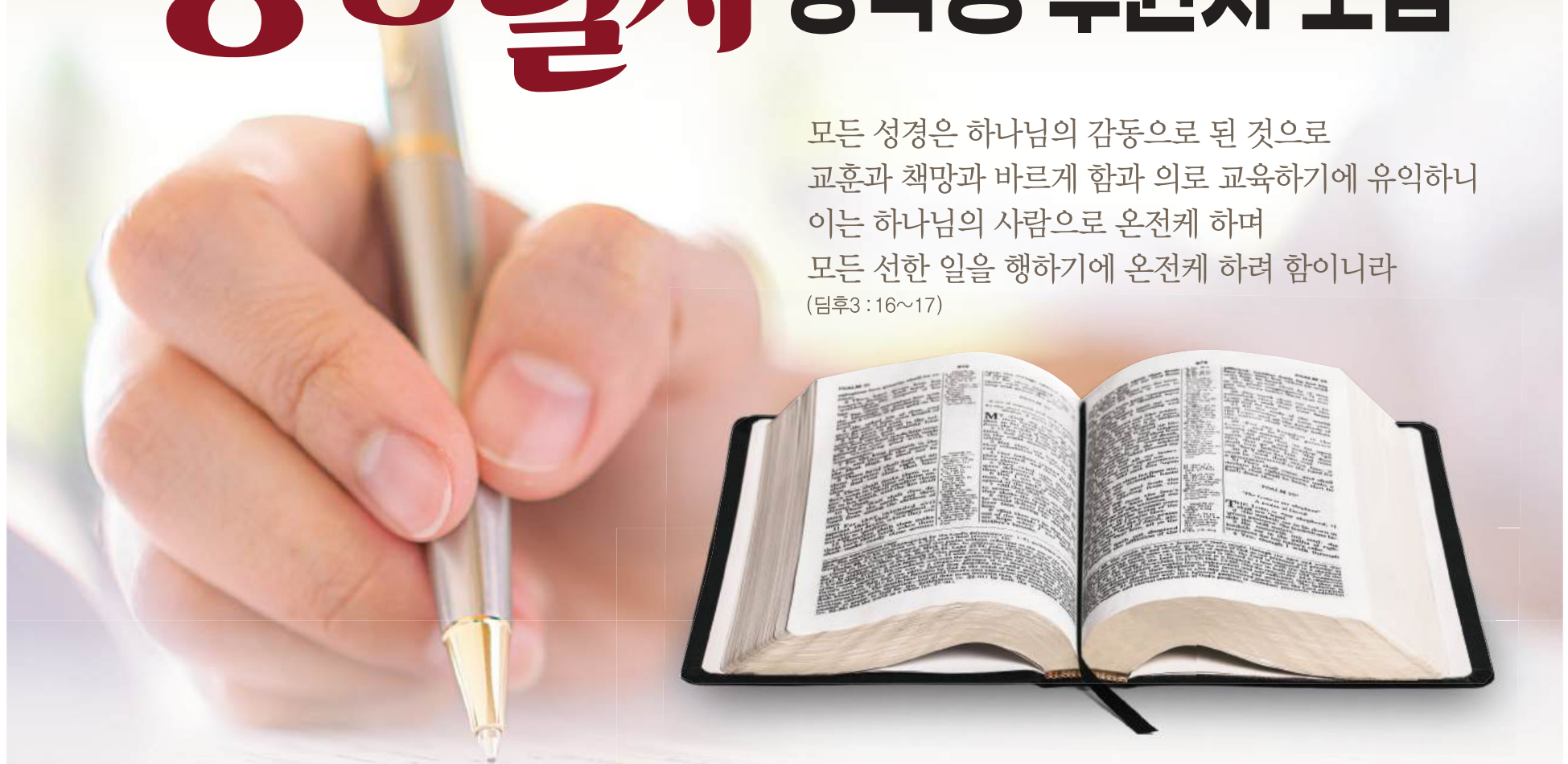


견적 상담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213-798-2200**
OC 6904 Oran Cir.
Show Room Buena Park, CA 90621

성경 필사 **제3기** 장학생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세상의 수많은 미디어와 자극적인 콘텐츠 속에서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다시 말씀 앞에 서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미주 기독교일보는 올해도 신약성경 6권 필사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로마서까지,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써 내려가며 그들의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캘리포니아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까지 총 34명의 장학생이 선정되어 말씀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글을 적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인생의 방향을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 장학생 한 명을 세우는 것은 한 인생을 세우는 일입니다.
- ★ 말씀을 붙잡은 다음 세대는 교회를, 가정을, 이 땅의 미래를 일으킵니다.

이 귀한 34명의 장학생들이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서 걸어가도록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분들은 이들에게 전달될 장학금 후원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결단이 다음 세대에게는 한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됩니다. 이들의 손끝에서 써 내려가는 말씀 한 줄 한 줄이 장차 이들을 세우는 능력과 생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귀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 감사합니다.



지난 1기와 2기 장학생들이 고백한 은혜의 이야기

- “필사하는 동안 제 삶이 변했어요.”
-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제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가 붙들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 “나는 성경 필사를 통해 희망을 품게 되었고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과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성경과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아는 것은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장학금 **1인당 \$1,000**

문의 : 기독교일보 213-434-1170
 이메일 : chdailyreporter@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기독교일보



주최 : 기독교일보

주관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신성욱 칼럼

섬김과 사랑이 이긴다



신성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최근 제자로부터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모시고 있는 담임목사님이 인격이 탁월하고 참 겸손한 분이라고 자랑했다. 심지어 부목사가 설교하고 내려오면 고개를 숙인 채 굽신거리며 인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그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있는 교회의 장로들과 부목사까지 담임목사를 우습게 알고 막 대한다고 했다. 오죽했으면 부목사의 설교 후에 고개를 많이 숙이고 인사하지 말라고 담임에게 조언해 드릴 정도라

고 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 사랑과 존중이 넘쳐야 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부교역자들에게 감질하거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다가 SNS에 도배하다시피 폭로가 되어 쫓겨나는 담임목사들의 얘기가 구설수에 종종 오르내린다.

카리스마를 휘두르거나 폭언을 즐겨하는 독재형 스타일의 목회자에게는 장로들이나 부교역자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함을 본다.

과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지금과 사뭇 달랐다. 대학부 시절 모교에 담임목사님이 계셨다. 그분은 설교에는 은사가 거의 없는 분이셨다. 설교가 매끄럽지도 않고 내용도 별로 없고 전 달마저 따분했던 설교였음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인정하는 바였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과 인자가 얼마나 많으셨는지, 모든 성도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는 분이셨다.

그러던 어느 날, 딸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발소에서 이발하시다가 갑자기 심장에 마비가 와서 담임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발인예배 때 모인 모든 성도

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내 눈에서도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렸음은 물론이다.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할 설교의 능력은 별로 없었지만, 인격이 훌륭하고 사랑이 많았기에 성도들 모두가 그분을 존경하고 따랐다. 위에서 언급한 담임목사님은 해외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식도 풍부한 분이셨다고 한다. 하지만 단 하나 카리스마가 없고 작하고 겸손하다 보니, 양 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은 받지 못한 채 갖은 수모와 조롱을 당하면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음을 보았다.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다.

누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요즘엔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하셔도 쉽지 않을 것이다.”

목회 현장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웬만한 핍박이나 수모에도 끄떡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야 목회할 수 있는 불행한 교회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분명하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카리스마나 권위가 아니라, 사랑과 진실된 인격이라는 사실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강한 말이 아니라, 오래 참고 섬기는 삶이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진정한 권위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아니라, 아래에서 품는 사랑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랑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존중받고 섬김 받는 목자가 되려고 하는가, 아니면 존중하고 섬기는 목자가 되려고 하는가?”

비록 세상이 거칠어지고 교회가 변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 이 지금도 그 사랑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년부터 섬김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참목자로 거듭나면 좋겠다.

구봉주 칼럼

허드슨 테일러 (1) - “믿음은 무엇인가?”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 1832-1905)는 영국 출신의 선교사로,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중국내지선교회(CIM)를 창립하여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중국인의 옷과 문화를 받아들여 마치 중국사람처럼 사는 지극한 헌신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떠나 보내면서도, 결코 사역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그는 늘 사람에게 호소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따른다”는 신앙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소유하고 실천하였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허

드슨 테일러가 낯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붙들었던 믿음, 그가 이해한 진정한 성경적 믿음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리’는 말로 바꾸어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 같은 허드슨 테일러의 주장은 너무나 옳은 견해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이치에 맞고 존재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것에 의지하는 것은 무모한 것도 아니고 모험도 아닌, 명백하고 건전한 상식입니다.

둘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은 아이처럼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아이에게 끼니때마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애 쓰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부모가 되어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보다 덜 친절하시고 덜 배려하시는 분이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잊으시는 적은 결코 없다고 나는 믿는다. 그리 좋은 아빠가 아닌 나 같은 사람도 자녀를 잊은 적은 없다. 그러니 아주, 매우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찌 당신의 자녀를 잊으실 수 있겠는가?”

셋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은 영적인 세

계에서뿐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을 찾을 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도, 또 재정을 드릴 때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선교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 그 공급이 부족한 적이 없다. 무엇이 믿음 선교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분명 바울 사도는 가난한 유대인 교회를 위해 모금하면서 헬라인 교회들에게 헌금을 촉구했던 일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넷째,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은 수단의 사용과 양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853년 배를 타고 처음 중국으로 갈 때 허드슨 테일러가 타고 있던 배가 웨일즈 해안을 떠난 뒤 얼마 안 되어 심한 폭풍우를 만났을 때, 허드슨은 어머니께 구명복을 입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장이 승객들에게 구명복을 입으라고 명령하자 그것이 불신앙의 표시여서 하나님께 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것을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동역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수단의 사용이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과 상반되는 일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미신이나 맹목, 또는 게으른 무위(無爲)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버지 되심에 근거한 것이고 분별 있는 조심과 행동이 따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믿음을 사용하였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가 정의한 믿음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이 맞을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아이처럼, 간구하고, 영적인 상황에서나 물질적인 상황에서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도 믿으십시오. 실제적인 믿음, 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DAVID'S TENT
다윗의 장막

REPENTANCE • RESTORATION • REVIVAL

다윗의 장막

— DAVID'S TENT —

70 HOURS NON-STOP
PRAYER & WORSHIP

JOIN US

70시간 연속 기도회

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lifornia

7월 27일(월)~ 7월 30일(목)

July 27(Mon)–July 30(Thu)

📧 70pray@gmail.com ☎ 626-810-3455 🌐 www.70pray.com



[함께하는 기관] 미주복음방송 | CABC | 굿네이버스 | 한국침례교해외선교회(FMB회장: 주민호 목사) | SEED 선교회
WMU(남종성 교수) | CCC(박종술 목사) | NextGen English Ministry(손경일 목사) | 기독교일보
모퉁이들선교회 | 미주성결신학교 | Kalam Mission | 뉴욕모자이크교회 | 토렌스조은교회 | 아름다운교회
더크로스교회 | 오렌지가나안교회 | 남가주사랑의교회(이준영 목사) | 세계등대교회 | 원더풀커뮤니티교회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순례자에게 요구되는 영적 자가 진단

‘영적 퇴보’ 겪는 것 같다면, 배교라는 결말 이르기 전에...



천로역정 주인공이 거쳐왔던 순례 길을 차례로 되돌아간다면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시대에 ‘영적 퇴보와 배교’가 왜 말인가? 마크 존스는 자신이 쓴 책, <마크 존스가 말하는 영적 퇴보와 배교>라는 책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자문한 뒤, 목회자가 처한 가혹한 현실 중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볼 수 있는 영적 퇴보’이고, ‘때로 공공연한 배교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현실 문제에 눈 감고 마냥 긍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것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251-252쪽).

마크 존스는 청교도 사상 전문가이자 개혁주의 신학자로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페이스 개혁 장로교회 목사이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죄란 무엇인가> 등을 저술한 뛰어난 저자이기도 하다(복있는사람, 2018, 2017, 2023).

특히 조엘 비키와 함께 쓴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을 통해, 그는 자신이 청교도 신학에 능통한 실력자임을 분명하게 입증했다(부흥과개혁사, 2015). 마크 존스가 쓴 대부분의 책이 교리적이긴 하지만 항상 목사로서 그는 교리의 적용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 쓴 <영적 퇴보와 배교>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 할 수 있겠다.

원제는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을 변형한 'Pilgrim's Regress(순례자의 회귀)'로,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걷던 순례자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꼬집었다.

마크 존스의 글은 담백하다. 분량이 매우 길지 않지만, 담겨 있는 진리가 풍성하다. 총 1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을 통해, 저자 존스는 먼저 영적 퇴보와 배교가 성경이 말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밝힌다. 이어 순례자는 참된 신자로서 반드시 진보한다는 것을 밝힌다.

이후로는 가지각색의 그리스도인 중 특히 영적 배교를 향해 퇴보하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식어버린 사랑, 다시 등장하는 교만, 경건한 두려움의 상실, 죄를 죽이는

데 실패함, 기도를 소홀히 여김, 성경을 소홀히 여김, 교회를 버림, 우둔함 등을 각각 면밀히 분석한다.

그리고 영적 퇴보자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아무리 ‘연약한 은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소망과 함께, 그렇지 않은 자는 결국 배교로 빠져들 것이라는 경고를 남긴다. 각 장은 ‘적용’으로 끝나는데, 저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찾을 수 있는 교훈을 소개하고 ‘더 깊은 목상을 위한 질문’과 함께 삶에 직접 적용하도록, 또한 순례자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영적 퇴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저자가 12장에서 언급한 ‘우둔함’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병원을 찾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영적으로 퇴보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깨닫는 자는 드물다. 실제로 영적 퇴보를 겪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극히 자연스럽고 문제 될 것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적 퇴보에 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렘 17:5)”.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전 16:22)”. 이러한 성경의 일깨움 앞에서 우리는 순례자가 그 길에서 멈춰 있거나 뒷걸음질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태도를 배운다.

존 오웬이 쓴 <죄 죽이기>와 같은 책을 읽을 때,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죄와 싸우고 씨름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은 영적 진보를 위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영적 퇴보의 증상들을 예리하게 진단하고 처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크 존스가 이 책을 통해 독자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한



▲지구촌교회 필그림하우스 천로역정 순례길을 함께 걷는 모습. ©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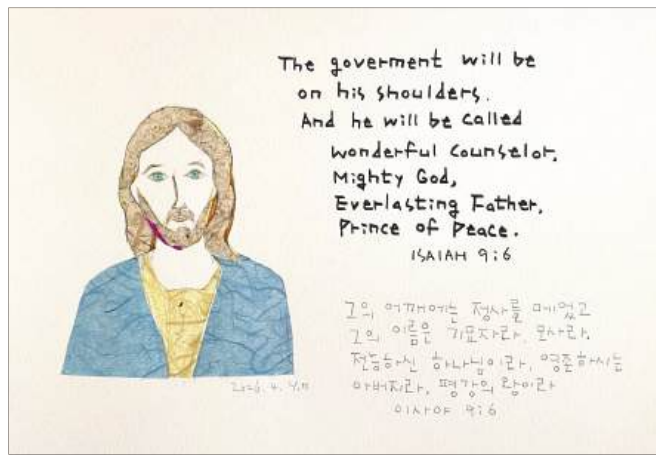
<천로역정>을 읽을 때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인생에 빚대 생각해 본다. 심자가 아래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던 죄의 짐이 벗겨져 자유함을 얻었을 때 순례자의 종착지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것이 시작이었다. 가는 길 곳곳에 위협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고, 크리스천은 실수하여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퇴보했다가 회복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반복한다.

사실 모든 크리스천은 순례자다. 영적 퇴보와 진보를 반복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종착지에 도달하는 순례자. 하나님 은혜가 우리 우둔함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훨씬 더 강하다.

저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작은 은혜가 발견되면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더 큰 은혜를 구하려고 간청한다. 은혜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를 갈급하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영적 퇴보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정말 배교라는 비참한 결말에 이를 때까지 방치할 것이 아니라, <마크 존스가 말하는 영적 퇴보와 배교>라는 도구를 통해 정밀검사를 받아보자. 그래서 작은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지 말고,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살자. 영적 회복과 진보를 맞보자. 하나님은 우리 중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그의 어깨에는 짐을 메어놓고 그의 이름은 기묘하다. 권사권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다. 패가망신 강미이다. 이사야 9:6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예수 부활하셨네

LA장로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주소 및 전화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한현중 담임목사

예수 부활하셨네

나눔과 섬김의 교회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주소 및 전화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엘리아 김 담임목사

[서성록, 한 점의 그림] 현대 조각 1세대

운영자, 조각으로 증언한 믿음의 삶

홍익대 미술학부 첫 입학생
인체 재현 넘어선 풍만함과
곡면 절묘한 조합 생명 추구
기독교 미술 관련 작품도 다수
교회 사역과 선교사 지원도

조각가 운영자(1924-2016)가 미수(米壽)를 기념해 2011년 서울 선화랑에서 12번째 개인전을 열었을 때였다. 고품격에도 지지치 않고 예술에 모든 힘을 쏟는 그의 모습에 모두 감탄했다.

한 작품 한 작품에 깃든 열정이랄까, 정성 때문에 웃음을 머미는 심정으로 찬찬히 관람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작가는 '나의 삶과 예술'이라는 책자도 발간하며 그동안 인생 역정을 돌아보기도 했다. 운영자는 한국 조각의 포문을 연, 현대 조각 1세대에 속하는 작가다. 물론 이전에도 김복진이나 김경승 같은 조각가가 있었지만, 한국전쟁 이후 본격화된 현대 조각의 흐름에서 보자면 그의 존재는 더없이 중요하다. 회화와 조각 모두 미술 흐름은 국내 대학 출신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운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시대 작가들이 마치 백지 위에 무언가를 써 내려갔듯, 운영자는 조각 예술을 정립하기 위해 힘썼다.

작가는 1949년 개교한 홍익대 미술학부의 첫 입학생이었다. 운영자에게 남다른 재능을 발견한 조각가 윤경렬은 당시 일본에서 돌아온 조각가 윤희중을 소개했다. 때마침 홍익대 미술학부 창설을 준비 중이던 윤희중은 운영자를 제1회 조각과 신입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그의 학창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1949년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나 전쟁으로 교사(校舍)를 부산으로 옮겼고, 휴학을 하다 서울 수복 후 종로 장안빌딩을 임시 교사 삼아 실기실로 마련됐을 때 복학했으며, 1955년이 돼서야 졸업장을 받았다.

이 무렵 작가는 주로 국전(대한민국미술전람회)을 통해 작품을 선보였다. 1953·1954년 연속으로 특선에 오르며 주목받기 시작했고, 특히 1955년에는 문교부 장관상과 대한미술가협회 회장상을 동시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 후에도 마지막 30회 국전까지 꾸준히 참여했으며, 추천작가와 초대작가로도 활약했다. 운영자의 작품은 크게 여인상과 모자상으로 구분된다. 여인상과 모자상은 조각가들이 가장 즐겨 쓰는 소재로, 적지 않은 작가들이 다뤘었다. 그의 조각이 차별성을 갖는다면, 고전 조각처럼 인체의 재현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 요소를 첨가했다는 데 있다. 바로 풍만함과 곡면의 절묘한 조합에서 오는 생명 추구다. 원로 조각가 전퇴진은 운영자가 대상을 주관적 의식으로 변화시키고 부드러운 곡선과 탄력적인 불륨을 절묘하게 융합시켜 고유의 구상 예술 세계를 구축했다고 보았다(제8회 석주 운영자 회고전, 가나아트센터, 2001). 말하자면 운영자는 혁신적 움직임은 아니더라도, 조각의 오랜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변주를 시도한 셈이다. 그의 작품 주제는 모자의 사랑, 연인의 사랑으로 요약된다.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생명이란 곧 사랑이다. 만일 사랑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땠을까? 낭만도, 열기도, 평화도 없지 않았을까.

인간에게서 사랑의 힘을 빼앗는다면, 인간은 마네킹이나 로봇 같은 존재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엿볼 수 있는 부드러운 곡면과 유기적 형태, 풍만한 부피감은 바로 이러한 발상에 기초해 싹튼 것이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관계성이다. 그의 작품에는 두 형상이 짝을 이뤄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 형상은 인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기적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런데 두 형상은 긴장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 관계로 존재한다. 서로 의존적인 관계

에서는 배려와 포용이 그들을 지탱시키는 필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의 작품에서도 하나의 형상은 어떤 독립적 지위를 내세우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하나의 형상은 다른 형상에게 자리를 내어주거나 양보하는 듯한 기색이다. 이를 통해 두 형상은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감상자에게 편안한 느낌을 안겨주는 것은 작가가 바로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 유의했기 때문일 것이다. 운영자의 활동은 전시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공공미술품으로는 먼저 권을 장군 행주대첩비(1964-1965), 경희대 중앙도서관 분수 조각(1967~1970),

다산 정약용 동상(1969), 삼성생명빌딩 조형 조각(1991) 외 다수가 있다. 기독교 미술과 관련된 작품도 이에 못지 않다.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 정원에 설치된 <아담과 이브>(1966)는 비구상 작품이다. 경동교회 강원용 목사는 기독교 정신을 문화예술계에 확산시키는 일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런 취지에 동감한 작가가 높이 3미터의 <아담과 이브>를 건립했다.

가장 이른 시기 제작된 작품은 경동교회에 설치됐던 <동방박사가 오시던 날>(1952)이라는 두 점의 부조 작품인데, 한 점 길이가 9미터씩, 모두 18미터가 되는 대작이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는 여인들과 목동들의 모습을 함축적이며 간결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경동교회를 새로 짓는 과정에서 떠나보내야 했으나, 작품을 제작할 때 찍어둔 사진이 남아있어 원작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작가에 따르면 형태를 떠서 작품을 보관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과 제반 문제로 포기했다고 한다. 만일 작품이 있었다면, 전쟁 기간 제작한 운보 김기창의 <예수의 생애>와 함께 역사적 작품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탑>(1986)은 그의 작품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다. 1886년 4월 인천 제물포항 부두에 상륙한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를 기념해 제작한 기념탑은 중앙의 청동 인물조각과 좌우 날개의 석재 군상으로 구성돼 있다.

탑 중앙에 자리한 독신이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와 부인 엘라 아펜젤러 등 세 명의 인물은 각기 다른 동작을 취하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운영자, 1986.

고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른쪽에 성경을 가슴에 품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며, 엘라 아펜젤러는 감격에 겨워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다. 조각상 기단에는 아펜젤러의 기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백성을 얻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이 조각상의 좌우에는 배를 타고 온 선교사들을 환영하는 장면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성경을 읽는 장면까지 복음의 전래과정을 알려주고 있다. 이 외에 운영자는 한경직 목사 흉상, 대광고등학교 상징 조각, 예담교회와 목원대학교 교회에 설치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등 많은 기독교 관련 작품을 남겼다. 남편을 일찍 여읜 관계로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며 살 수도 있었으나, 운영자는 이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며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 작가는 교회 사역과 선교사 지원에도 적극적이었을 뿐 아니라 석주미술상 제정, 한국미술협회 고문,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고문, 각종 회의나 심사 참여로 후배 미술인들을 돕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었다. "남을 도와주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생을 보내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는 그의 지론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대로 실천됐다.

"88년의 세월이 내겐 너무 짧은 시간으로 지나가 버린 듯하다. 예술과 함께한 지난 세월, 나이는 단지 나에게 육신의 쇠약함을 주었을 뿐, 내 마음속 열정과 소녀 같은 꿈을 앗아가지는 못했다(운영자, <나의 삶과 예술>, 2011)."

서성록 명예교수(안동대 미술학과)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부조 1).

담임목사 청빙 공고

남가주 살롬교회는 15년 전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캘리포니아 토랜스에 위치한 장로교단(PCA) 소속 교회로서 현재 담임목사님의 정년 은퇴 일정에 맞추어 목양 / 선교 및 다음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을 가지고 섬기실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1. 자격요건

- 1)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
- 2) 목회 경력 5년이상 이신 분
- 3) 미국 장로교(PCA)교단 가입에 문제 없으신 분
- 4)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5) 한국어와 영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 하신 분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 최종 학력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 2) 목회 비전 및 본인과 가족 소개서(신앙간증 포함)
- 3) 최근 한국어 설교 동영상 2편(website link도 가능)
- 4) 추천서 2부

3. 기타사항

- 1) 이메일: Shalomsearch@yahoo.com 서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 2) 서류가 제출되는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청빙이 완료된 후 마감 합니다.
- 3) 서류 제출과 질문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 4) 서류 심사후에 개별 통지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6)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결정이후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남가주 살롬교회 (Shalom1004.com)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이슬람 원리주의와 문명 충돌...이란 신정 체제는?

7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잠정 휴전에 전적 합의하며 전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번 사태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기독교인들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 ‘모하레베’ 신정 통치와 탄압의 칼날

이란의 이슬람 신정 체제는 이슬람 교리를 국가 통치의 절대적 규범으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가 체제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강력한 법적·교리적 근거로 꾸란 5장 33절(마이다 장)을 활용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해당 구절은 “알라(하나님)와 그분의 라술(사도)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키고(무하리바) 땅 위에서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에게 내리는 벌은 살해되거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란 사법 체계는 여기서 파생된 ‘모하레베(Moharebeh, 알라에 대적하는 죄)’라는 죄목을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란 신정 체제의 중심에는 ‘벨라야테 파키(법학자 통치론)’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은둔한 제12대 이맘을 대신해 최고 율법학자가 국가를 통치한다는 시아파 특유의 신학적 배경을 정치화한 것이다. 이 체제하에서 최고 지도자(현재 모흐타파 하메네이)는 신의 대리인을 대행하는 절대적 존재로 간주된다. 이만석 박사(이란인교회 담임, 전 이란 현지 선교사)는 분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고 지도자가 이끄는 신정 국가에 대항하는 것을 곧 이슬람 질서와 알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동일시한다”고 지적했다.

이란 신정 체제의 폐쇄성은 자국민을 향한 무력 진압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꾸란 33장 59절을 근거로 한 하잡 착용 의무화는 여성 인권 통제의 도구였다. 채원암 전 주독 베를린 한국 총영사는 이를 “이슬람 교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하잡 시위 무력 진압과 지난 1월 ‘피의 수요일’으로 이어진 학살은 이슬람 종교적 명분 아래 자행되는 인권 탄압의 실상을 방증한다.

■ 자유민주주의의 이식의 기회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중인 한국 선박에서 촬영한 이란의 미사일 발사 모습.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제공

이러한 숨 막히는 탄압 속에서 현지 기독교인들은 이번 전쟁을 오히려 변화의 기회로 바라보고 있다. 이만석 박사는 “내가 담임하는 교회의 이란인들을 비롯해 현지인들은 이번 전쟁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란 정부가 계속 국민을 핍박하니, 외부 세력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이란의 자유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전쟁을 반기는 분위기”라며 “이를 억압된 이슬람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이식할 결정적 기회로 본다”고 했다.

또한 이 박사는 “이슬람 신정 체제의 잔인한 탄압에 반감을 느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란 정부가 이를 우려할 수준”이라며 “현재 이란의 전도 및 신앙 활동은 목숨을 건 현지 기독교인들에 의해 암암리에(지하 교회 형태) 이뤄지고 있으며, 북한과 유사한 수준의 핍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쟁을 통해 이란 신정 통치의 약행이 전 세계에 드러나고, 대다수 국민들과 기독교인들이 자유에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자유를 향한 갈망은 구체적인 지표로도 드러난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 기구인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6 세계 박해지수(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현재 이란 내 기독교 인구는 약 8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란 전체 인구의 약 0.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로, 당국의 눈을 피해 일반 가정집에서 모이는 ‘가정 교회(House Church)’ 형태로 신앙 생활을 이어가

고 있다. 아울러 네덜란드 소재 독립조사 기관인 GAMAAN(The Group for Analyzing and Measuring Attitudes in Iran)이 2025년 11월 발표한 리포트와 스탠퍼드 대학교 아바스 밀라니(Abbas Milani) 교수가 지난 3월 ‘찰리 로즈 쇼(Charlie Rose Show)’ 및 주요 외신 인터뷰에서 분석한 지표를 종합하면, 현재 이란 이슬람 신정 체제에 대한 실질 지지율은 12% 미만으로 파악된다.

또한 응답자의 약 80%가 국교 분리 원칙 즉 국가의 법률과 행정이 종교적 계율(샤리아)이 아닌 세속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 88%는 현재의 ‘이슬람 공화국’이 아닌 다른 형태의 정부로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나타

났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체제 이식의 내부적 열망을 뒷받침한다.

■ 이란 시아파 원리주의와 핵 보유의 위험성

현지인들이 이처럼 내부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유해석 총신대 선교학 교수는 이란 정권이 외부 세계, 특히 기독교 문명에 끼치는 실존적 위협에 주목했다. 그는 이번 전쟁의 이면에 흐르는 이란 신정 체제의 근간인 ‘이슬람 시아파 원리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것이 어떻게 세계적인 ‘문명의 충돌’로 번지는지 분석했다. 유 교수는 “시아파 원리주의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 정치적 패권을 지향하며, 특히 핵 보유를 통해 이슬람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아파가 핵을 갖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보유를 넘어, 지하드(성전) 곧 서구 기독교 문명과 결전을 준비하는 종교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이들이 핵을 손에 넣는 순간 서구와의 전쟁은 불 보듯 뻔하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문명의 충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아브라함 동맹과 중국 견제, 그리고 ‘문명 충돌’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당시 외교관으로서 현장을 목격했던 채원암 전 영사는 “호메이니 혁명 세력이 주 이란 미국 대사관을 점령해 52명의

인질을 444일간 억류했던 사건이 오늘날 모든 비극적 갈등의 시초”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인질극을 넘어, 이란이 국제 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에서 이탈해 폐쇄적인 신정 국가로 치닫게 된 결정적 분기점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의 개입은 지난 8명의 대통령 이 손대지 못한 이란 문제를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채 전 영사는 트럼프 정부가 구축한 ‘아브라함 동맹(이스라엘-아랍 국가 간 국교 정상화)’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이것이 더 거대한 ‘본질적 충돌’로 가는 서막임을 예고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시아파 아랍 국가들이 손을 잡은 이 동맹이 이란의 시아파 원리주의를 고립시키는 강력한 포위망이 될 것이며, 동맹이 공고해질수록 이란 정권의 자금줄과 영향력이 차단돼 결국 이란 내부적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포스트 중국’ 시대에 맞이할 근원적인 변화에 주목하며 “중국 공산당이 무너진 뒤 세계는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 대결 시대는 끝날 것”이라면서 “미국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전 하버드대학 교수)의 예측처럼 결국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 간의 거대한 대결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헝가리 정권교체...오르반 몰락 유럽 정치 재편 신호



페테르머저르헝가리총리내정자. ©wiki

헝가리 총선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16년

장기 집권이 막을 내렸다. 이번 결과는 헝가리를 넘어 유럽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칠 변화로 평가된다. 신생 정당 티서(Tisza)는 199석 중 138석을 확보하며 압승했고, 집권 여당 피데스는 55석에 그쳤다. 티서는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며 정치 주도권을 빠르게 장악했다. 정권교체의 중심에는 페테르머저르 대표가 있었다. 그는 과거 집권당 내부 인사였으나 정치적 결별 이후 정권 교체를 이끄는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머저르는 외교관과 정부 고위직을 지낸 인물로, 2024년 사면 논란

을 계기로 정부를 공개 비판하며 정치 전면에 나섰다. 이후 민생과 부패 문제를 중심으로 지지를 확대했다. 이번 선거는 외교 방향 전환이 주요 쟁점이었다. 오르반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로 EU와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에 따른 재정 지원 중단 등 부담이 이어졌다.

머저르는 ‘유럽 복귀’를 내세우며 EU와 나토와의 관계 회복을 강조했고, 당선 이후 이를 공식화했다. 헝가리는 저성장과 높은 물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EU 지원 중단까지 겹치며 민심이반이 확대됐고, 이는 정권교체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결과는 유럽 정치 지형 변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오르반의 패배는 기존 정치 흐름에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권교체가 유럽 내 정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홍은혜 기자

학생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mgamsa

문선영의 머니토크
세금때문에 CD를 어뉴이티로 옮겨야 할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선영씨, 저는 59세 싱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 수지 박입니다. 제가 11남매 중 막내라서 어머님 연세가 93세로 연세가 많습니. 다행히 어머니가 기억이 없으실 뿐 큰 건강에 문제가 없으시고, 지도 하는 일이 재택근무 전문직이라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실 계획입니다. 저에게는 은퇴 적령기 같은 것도 없고 그냥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 노느니 일하자고 생각해도 아마 70넘어서 까지도 일하는 게 가능하고요, 인컴은 높고 대신 자녀도 없고 해서 돈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먹고 사는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올 해 세금 보고를 하는데 제가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빼고도 여기 저기 CD에 넣어 놓은 돈에 붙은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도 6만불 정도를 냅니다. 저희 CPA님은 제가 401k도 엄청 많이 넣고 있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니 더 이상 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었던 돈을 괜히 CD에 넣었나 싶을 정도로 내야 할 세금이 높아지니까 어떤 방법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문선영씨의 유튜브를 봤고 거기에 어뉴이티가 나오던데 어뉴이티가 세금을 안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문선영씨는 저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찾아 뵈기 전에 과련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재정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지 선생님, 수지 선생님의 재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일단 CD에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낸 것만 6만불 정도라면 일단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을 것 같네요. CD는 아시다시피, 계약이 끝나고 찾게 되면 반드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일년이나 8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새롭게 CD 상품을 찾아서 옮겨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그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 때문에 보통 귀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당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CD와 비교되는 플랜이 어뉴이티입니다. 먼저 CD의 목적은 1년이나, 8개월 등등 계약 기간 이후에 내가 그 돈을 사용해야 할 자금이 다 있을 때 단 돈 나마 이자를 받는 단기 플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지 선생님께서 내가 그 돈을 1년 후에도 찾아 쓸 일이 없다 싶으시면 당연히 어뉴이티를 통해 첫째 찾아 쓰지 않는 한 세금을 내지 않고 계속 자랄 수 있으며, 둘째 CD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어뉴이티가 오히려 상황에 맞을 수 있습니다. 어뉴이티에 대한 기본 설명은 이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브 채널에서 어뉴이티라고 검색하시면 주루룩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일단 어뉴이티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수지 선생님 이 CD에 있는 돈을 은퇴 후 인컴으로 쓰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첫번째 어뉴이티, 무엇보다 돈을 넣어 놓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들어 8년 후부터 100세까지 따라 따라 매달 마치 소셜연금 처럼 인컴으로 지급되는 고정인컴 어뉴이티를 하나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의 장점은 내가 찾아 쓰지 전

까지 절대 택스를 내지 않고 계속 돈을 불리다가 내가 찾아 쓰겠다 싶은 시기 부터는 100세까지 혹은 내가 사망할 때 까지 고정 인컴을 받아서, 결국 내 돈을 세배 정도까지 총 찾아 쓰는 플랜입니다. 하지만 만약 나는 일을 오랫동안 할 계획이고, 인컴도 높을 뿐 아니라 소액과 401k 등을 통해서 은퇴 인컴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장된다 싶으시면 두번째 어뉴이티, 복리로 이자를 받으며 매년 늘어나고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찾아 쓸 수 있는 어뉴이티 플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어뉴이티 역시 내가 찾아 쓰지 않는 한 이자를 매해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은 불리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CD에 가지고 계산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첫번째 고정인컴 어뉴이티와 두번째 복리로 자라는 어뉴이티를 나눠서 넣어 골라야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내가 다 쓰고 사망하느냐 누구에게 남겨놓을 것인지에 따라서, 통령게어 같은 건강이 걱정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어뉴이티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이나 5년 정도 CD보다는 길지만 일반 어뉴이티 계약 기간 보다 짧은 어뉴이티를 원하신다면 또 고정이자를 받는 MYGA 갑박 딱딱 매달 마치 소셜연금 처럼 인컴으로 지급되는 고정인컴 어뉴이티를 하나 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플랜의 장점은 내가 찾아 쓰지 전

을 계기로 정부를 공개 비판하며 정치 전면에 나섰다. 이후 민생과 부패 문제를 중심으로 지지를 확대했다. 이번 선거는 외교 방향 전환이 주요 쟁점이었다. 오르반 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로 EU와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에 따른 재정 지원 중단 등 부담이 이어졌다. 머저르는 ‘유럽 복귀’를 내세우며 EU와 나토와의 관계 회복을 강조했고, 당선 이후 이를 공식화했다. 헝가리는 저성장과 높은 물가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EU 지원 중단까지 겹치며 민심이반이 확대됐고, 이는 정권교체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결과는 유럽 정치 지형 변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오르반의 패배는 기존 정치 흐름에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권교체가 유럽 내 정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홍은혜 기자

온가족이 함께하는 바이오텍 줄기세포 비즈니스 미션



세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새로운 라이프 비전

Teloyouth Business Mission인가?

- 1. 가족이 함께 일하는 행복**
한 가족, 한 팀
같은 비전과 목적을 향해 함께 성장
- 2. 리더십 & 코칭 시스템**
코치 라이선스 + 워크샵
→ 마음관리 · 리더십 · 영향력 성장
- 3. Business as Mission(BAM)**
비즈니스 현장이 곧 선교 현장
삶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 나눔

20-30대 TeloPet(텔로펫)

- 세계 최초 반려동물 줄기세포 영양 프로그램
- 한 달 안에 변화를 경험하는 “기적의 회복 사례”
 - 걷지 못하던 반려견이 다시 걷기 시작한 실제 이야기
 - SNS 시대, 차세대 인플루언서를 위한 최고의 기회
 - 12가지 글로벌 품질 인증 · 오가닉 슈퍼푸드 기반

www.TeloHealing.com/pet

젊은 세대에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블루오션 시장



40-50대 TeloYouth 비즈니스 기회

- 12개월 젊음 회복 프로그램
- 세포 나이를 10년 이상 되돌리는 혁신 기술
- 91% 재구매율 — 강력한 지속 수익 구조
- 독점 세포신호 기술 (Cell Signaling)
- 줄기세포 활성화 최대 36배 가능
- 수만 명의 놀라운 체험 사례
- 권위있는 제3기관들에서의 6가지 임상실험
- 12가지 글로벌 품질 인증

- 일년안에 월 \$10,000 - \$100,000 가능
 - 빠르게 확장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 www.TeloHealing.com

60대 최고의노후 준비 “은퇴 플랜”

- 10년 이상 젊어지는 회춘 프로그램
- 12개월 머니백 보장
- 기대 효과
 - 수면 · 에너지 회복
 - 근육 · 뼈 건강
 - 혈당 콜레스테롤 · 혈압
 - 스트레스 · 호르몬 균형
 - 위장 · 뇌 · 시력 건강 등등 온몸의 세포 기능과 구조 그리고 감정까지 회복

- 평생 무료제품이 가능한 마일리지 시스템
- www.teloyouthkorean.com



인생을 바꾸는 3가지 축복의 통합 플랫폼

건강 | 경제 | 리더십

5월달 행사 안내 (예약 필수 · 마감일 4월 26일)



폴 킴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Telo Biotech BAM (Business as Mission) 미팅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비즈니스 미션 비전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날짜 : 5월 2일(토) 오후 2시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글로벌 줄기세포 비즈니스 설명회

- 날짜 : 5월 9일(토) 오후 2시
(영어로 진행)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닥터 초청 세미나

- 날짜 : 5월 16일(토) 오전 9:45
6820 Orangethorpe Ave, Suite G, Buena Park, CA 90620
- 날짜 : 5월 16일(토) 오후 5:00
24341 El Toro Road, Laguna Woods, CA 92637
- 날짜 : 5월 17일(일) 오후 5:00
681 S Western Avenue, Los Angeles, CA90005

문의 : 714-732-8477 Paul Kim (수석코치)



텔로우스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